

2020년 가을호 vol.160

온라인으로 개최된 총동창회 가을 대바자회  
노숙자의 대모 최영아 동창  
이화의 가장 오래된 기도처 애다 기도실

#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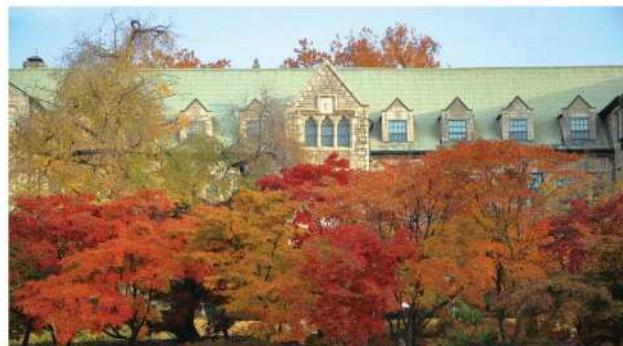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3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어야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3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2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3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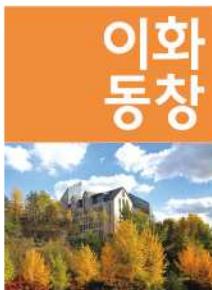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도교 교육학과 교수)  
포스코관의 가을 서정(2018)

####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조성아(정외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0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0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 03 2020 총동창회 대바자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첫 온라인 대바자회

#### 10 이화비즈

(주)사라페션·(주)한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안윤정 동창

#### 14 이화의 기도처 순례

이화의 가장 오래된 기도처 애다 기도실

#### 16 모교사용설명서

위로의 상징 이화 마크가 새겨진 기념품

#### 18 축하합니다

김의정 동창 외

####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20년간 노숙자들을 돌봐온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 최영아 동창

#### 24 이화인 모임 탐방

기독미술로 하나님된 이화기독미술인회

#### 30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유아용 가방 특히 낸 (주)도이 대표 류은정 동창

#### 36 총동창회 소식

모교에 코로나19 재학생 돋기 성금 1억여 원 전달 외

#### 39 선교부 소식

보구녀관에서 귀국 동창 선교사 격려 모임 가져

#### 41 모교 소식

2019학년도 전·후기 졸업생 배출,  
‘김옥길 선생 30주기 추모예배’ 온라인 개최 외

#### 4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알바니아 정인혜 동창

#### 48 대학(원) 소식 음악대학 외

#### 51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 54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61 동창 근황 신금례 동창 외

#### 66 동창이 펴낸 새 책 『하나의 반쪽』 외



03



10



14



20



24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시 15:1)

사랑하는 하나님,

잦아들지 않는 바이러스의 소식으로 영육혼이 지쳐가고,  
허다한 소음들로 인해 때로 혼돈이 때로 두려움이 때로 상실감이 밀려오지만,  
당신께서 빛으신 만물의 아름다운 변화를 마주하며 그 내음 깊이 마시면서  
생명의 신비를 기대함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당신께서는 한결같이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 또한 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무 염려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도록  
이 시간 힘주시고 마음 모아 기도의 줄 다시금 붙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각양의 헛된 소문들이 난무하고 왜곡된 진실들이 무성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악한 영들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 밭에 의심을 심어 결국에는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그리고 불평과 불화와 불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사오나.  
당신의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우리의 귀를 열어 세미한 당신의 뜻 환히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밭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삶의 영역에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 됨의 열매 풍성히 맺어 평등과 평화와 평안을 추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허탄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좌우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이편저편이 아닌 당신의 편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구멍 나고 어그러진 관계의 망들을 당신의 손으로 친히 엮어 매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를 낫게 여김으로 겸손히 무릎 꿇어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해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 가며  
배타적 사랑이 아닌 이타적 사랑으로 피차의 어두움을 밝히고 어루만져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새 바람을 싙아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 사전 녹화와 특색 있는 상품으로 온라인 대바자회 성공적 개최



### 3일 동안 온라인 판매에 31개 팀 참여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성큼 가을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총동창회는 9월 15일(화)부터 17일(목) 까지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대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바자회는 학과와 지회 및 대학(원)에서 총 31개 팀이 참여하였고, 각 팀에서 녹화 또는 준비한 동영상을 편집해 5개의 영상으로 묶은 뒤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흘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대바자회에서는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비롯해 면역증진을 위한 건강식품과 방역용품, 집콕 인테리어 제품 및 피부 관리 상품 등 다양하고 풍성한 상품이 소개되었다. 원활한 주문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총동창회에서는 문자폰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문을 일원화했으며, 물품 발송 후 즉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 특색 있는 홍보 영상을 준비해 온 학과들

온라인 대바자회는 홍보 동영상 사전 녹화, 영

상 제작 및 편집, 유튜브 채널을 통한 판매순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9월 1일(화)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홍보 동영상을 사전 촬영하였다. 당초 이를 위해 걸쳐 녹화를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과가 개별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변경하여 당일 8개 팀만 제작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시간표를 정해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해 안전하게 촬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아침부터 양손 가득 짐 꾸러미를 들고 나타난 동창들은, 얼굴을 반이나 가린 마스크 너머로 반가움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70여 개의 부스가 펼쳐져 있어야 할 장터 대신 각종 카메라 장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품을 진열하고 마이크를 차면서 어느 카메라를 응시해야 할지 당황한 것도 잠시였다. “주름 때문에 전문가에게 피부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 약사가 개발한 보톡스 마스크 팩을 소개합니다. 한 세트 가격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사흘간만 이 가격에 판매합니



온라인 대바자회에는 동창들이 직접 쇼 호스트로 등장하여 제품의 특징을 설명한 곳이 많았다.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팀들은 3분가량의 동영상을 찍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동선을 살피는 등 수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다.” 첫 촬영을 성공적으로 끝은 약학대학은 동창이 CEO로 있는 셀프톡스 회사 제품을 50%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내놓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합창대회 준비, 요양원 봉사와 같은 약대 동창회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어요. 대바자회에 주력하려고 했는데 막상 촬영한다고 하니 다들 안 하겠다고 도망가요. 목소리만 나오면 괜찮겠는데 비디오까지 신경 쓰려니 난감했습니다”라고 황경수(제약 88) 동창은 전한다. 황경수 동창은 “홍보 영상 준비를 위해 박병희(약학 84, 총동창회 문화부장) 동창 및 각각 일산과 부평에서 약사로 일하는 이경희(약학 88)·허은경(제약 87) 동창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수차례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 영상을 찍고, 각자 집에서 계속 연습했다”고 덧붙였다.

쇼 호스트로 나선 이경희·허은경 동창은 “처음엔 흰색 가운을 입었는데 특색이 없어 보여 가운을 벗고 화려한 색깔 원피스를 드러내고 활기찬 모습을 어필했어요”라며, “수다 떨듯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어요”라며 안도의 웃음을 나누었다.

물리학과에서 진행자로 선발된 김현애(물리 91) 동창은 “작년에는 물리학과에서 김치전과 부추전을 부치느라 앞치마 두르고 땀 흘렸는데 올해는 멎거리 장터를 열지 못하게 되었다”며 아쉬워했다. 김 동창은 “대학 때 은사님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코스모젠’(경희대 산학협력회사)에서 화장품을 기증해 주셨어요”라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천연추출물이 들어간 특허받은 저자극성



총동창회 대바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핸드메이드 및 특색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동창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화장품으로, 향염, 미백 효과와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학과 단체 대화방에서 하루 만에 동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물리학과 회장 신소영(물리 88) 동창은 “주문받은 주소로 물품을 한 개, 또는 두세 개로 분류해서 포장하고 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완판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상품 선정에서부터, 홍보와 판매, 배송 방식까지 기존의 오프라인 대바자회와 전혀 달라 몇 배 더 신경 쓰이고 힘들었을 임원들의 고충이 엿보였다.

이번 대바자회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과 액세서리가 많이 감소한 가운데 조소과의 핸드메이드 가죽 팔찌는 단연 돋보였다. 조소과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그룹 전시회를 끝내고 함께 가죽으로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O&Y LEATHER & CRAFT 오주연(조소 90)·윤영(조소 90) 동창은 “대바자회를 위해 의기투합해서 특수 표피와 비싼 가죽을 사서 하나하나 수제로 만들었다”면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선영(조소 89) 동창은 무궁화 자수를 섬세히 수놓은 자수공단 브로치를 판매하여 감탄

을 자아냈는데, 사은품으로 주는 자수 골무고리 역시 선물용으로 활용했다.

사전 홍보 영상은 각 팀당 20여 분가량 녹화했지만 실제 방송은 3분 분량으로 편집되었다. 이 날 제작에 참여하지 못한 팀들은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내 주었고, 그도 어려우면 사진 30장을 총동창회에 보내 총동창회가 대신 영상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친환경 농산품과 추석 맞이 상품 인기

판매는 9월 15일(화)부터 3일 동안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한 31개 팀을 5개로 크게 묶은 뒤 접속 가능한 링크를 만들어 이를 SNS 등을 통해 이화 동창들에게 전달하였고 동창들은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온라인 대바자회에 접속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듯 두근두근 설레는 심정으로 온라인 대바자회 영상을 클릭했다. 첫 등장한 제품은 귀농 이화인의 유기농 농산물이었다. 지리산 뱃사골로 귀농한 지 20년 된 정경아(국문



이번 온라인 대바자회에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기농 제품, 건강식품과 마스크 관련은 물론, 집콕 인테리어와 화장품 등이 많이 소개되었다

88) 동창은 ‘생강조청의 여왕’으로 불린다. 직접 농사지은 생강을 재료로 옛날 방식대로 만든 생강조청은 2014년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경아 동창이 운영하는 ‘지리산농부들’에 접속하니 ‘이화여대 총동창회 온라인 대바자회 기념 통큰 세일 10프로 할인’ 행사 문구가 반갑게 맞는다. 멀리 지리산에서 모교 오프라인 대바자회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번에 온라인 장터를 통해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동창은 “병원과 약국도 없던 시절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면 조청 한 숟갈로 싹 나았다”면서 “설탕 대신 조청은 양념이 아니고 약(藥)념이에요”라며 전통식품으로 가족 건강을 돌보는 지혜를 전수했다. 이곳의 3회 법제 호두 기름과 구중구포 도라지 조청도 인기 상품이다.

사회학과에서는 친환경농업 명인 박준호(사회 70) 동창이 직접 키워 생산한 찐(진짜) 농산물, 여주, 고사리 등을 내놓았다. 박 동창이 직접 키운 이 상품들은 대바자회의 단골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박 동창의 고사리는 맛있기로 정평이 나 있어 대바자회 기간 금세 매진되는 물건으로 유명하다. 정치외교학과는 해남 김, 멸치 등 건어물로 구성한 건강꾸러미를 판매하면서 멸치볶음, 새우볶음 요리 영상까지 올려 구매욕을 자극했다. 무용과의 강원도 특산품 홍진새우 상품, 사회과교육과의 깻잎장아찌도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시대의 추석 맞이 상품으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 영양제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천종삼(가정관리학과), 용진삼(수학과), 진락발효홍삼(장식미술과), 비타믹스 뉴트리미 영양제(식품영양학과) 등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유기농 농산물이 생산되고  
이 재료를 요리하는 과정,  
수제 액세서리를 직접 만드는 방법까지  
등영상에 담아 신뢰를 높였다

또한 녹미회는 추석 저녁 보름달 같은 앙금이 가득하고 말랑한 ‘영의정 인절미’ 세트를,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동창 창업회사 ‘아이두비’에서 누룽지 세트를, 섬유예술과는 먹음직스러운 보리굴비 한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의류직물학과는 평창 송화고 베섯 세트를 상중하 품질로 다양하게 준비했고, 십장생 수저 세트와 요리도구 세트 등 명절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다채로운 장터로 꾸몄다. 의류직물학과 부회장 김지희(의직 86) 동창은 “의직과 내의 여러 단체 대화방을 모두 활용하여 홍보한 덕분에 송화고 베섯 판매 성과가 좋았다”면서 “행사장으로 물품을 가져와 팔고 남으면 재고를 떠안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온라인으로 업체에 주문과 배송을 맡기고 수익금 몇 프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니 구매자와 업체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했다”면서 대바자회 수익금도 채울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이번 대바자회에는 코로나19 관련 상품이 대거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세태를 반영해, 영문과는 동창 기업인

이건창호의 중문 제품과 마루 제품을 시공비 포함 5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주목을 끌었다. 또한 압구정 세리미용실의 정액권 100만 원을 65만 원에 할인 판매하는 상품도 내놓으며 남다른 스케일을 보였다.

### 코로나19 시대 맞아 집콕 상품과 마스크 관련 상품 등장

영문과 회장 윤유정(영문 76) 동창은 “오프라인 대바자회 현장에서는 박리다매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집 인테리어의 변화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상품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영문과 임원들이 미용실 사장님과 몇 차례나 미팅하며 가격을 조정하는 등 발품을 팔았다고 한다. 특수교육과 동창이 수제로 직접 만든 아기 자기한 메리타임 향초와 물리학과의 컬러풀한 티슈 케이스도 집콕 인테리어 소품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2020 올해의 이화인’(레티날 제품과 비타민씨 세럼), 약학대학(셀프톡스), 물리학과(코



총동창회에서는 오브엠 구두와 앙스모드 의류를 기증받아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했고 동창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념품을 내놓았다



동창들이 기증한 각종 아나바다 제품들을 내놓은 과도 있다

스미퓨어), 안산 지회(루비셀 화장품), 생활미술과(숨)에서 판매한 화장품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돌밥돌밥(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에 지친 동창들의 피부에 생기를 주는 화장품이 많이 등장한 것이 올해 대바자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마스크와 마스크 걸이 상품도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아이템이다. 가정관리학과에서는 서진(가관 91) 동창이 백토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와 패션 마스크를 선보였다. 서 동창은 “백토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는 30회 빨아 써도 항균 기능이 유지되고 일회용 마스크에 비해 환경보호에도 좋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위생적인 마스크 보관을 위해 마스크 보관 케이스도 판매하였다. 광석 비즈로 만든 일곱 종류의 마스크 줄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촬영 대기하고 있던 타 과의 동창들이 너도나도 골라서 사가며 즐거워하였다.

이 밖에도 녹미회에서 판매한 아크릴 체인 마스크 걸이 여섯 색상과 간호대의 원석 마스크 걸이도 화면을 장식하며 유난히 존재감을 뽐냈다.



### 패션과 구두, 아나바다 상품

‘가방의 모든 것’이라는 광고 문구 아래 반짝이 쇼퍼백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한 피아노과, 이화여대 패션디자인연구소 E:FEEL의 의류 10개 디자인을 30~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은 장식미술과, 매년 판매되는 LF의류(심리학과), 주름장식 의류(대학원, 수학교육과), 이은경(동양 87) 동창의 작품이 새겨진 머그잔을 내놓은 동양화과, 육심원(동양 96) 동창의 원화를 모티프로 제작한 의류와 가방(사회복지학과) 등은 액세서리 제품(조소과, 청주 지회, 간호대학)과 함께 직접 입고 걸쳐 보지 못해 아쉬웠던 상품들이다.

‘2020 올해의 이화인’은 고운 한복을 입고 등장



온라인 대바자회 개최를 알리는 남상택 총동창회장

하여 미니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200박스, 쿨링 히브 스프레이 등의 제품을 열성적으로 홍보하였다. 대바자회에 내려고 아껴두었던 애장품(스와로브스키 팔찌, 카카오프렌즈 인형 등)을 내놓은 관현악과, 이탈리아 현지에서 150유로에 산 장갑과 클러치를 비롯해 동창들의 기증품을 판매한 생활미술과 등 모두 정성껏 준비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이날 신상품인 배꽃 모양 '석고 방향제'를 처음 선보였으며, 대바자회의 명물 저염 백명란 1kg과 다섯 가지 색상의 초경량 우산, 포스트잇 등도 판매했다. 또한 오브엠 대표 이소연(성악 87) 동창이 총동창회에 기부한 600 컬레의 구두와 앙스모드 대표 안윤정(독문 69) 동창이 기부한 40켤의 고급 의류는 총동창회 대회 의실에 매대를 설치하여 한 달 동안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대바자회에서 510켤 완판의 기록을 세운 오브엠 구두는 2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 때문인지 선물용으로 열 컬레를 구입하여 한아름 안고 간 동창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한 생활을 해온 이화 동창들은 오랜만의 학교 소식

에 반가운 마음으로 화면에 접속하여 온라인 대바자회를 지켜보면서,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나마 한 공간에 모여 이화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대바자회 때처럼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사진 녹화를 통해 유기농 제품이 생산되고(국어 국문학과, 사회학과),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고(조소과, 청주 지희),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과정(정치외교학과, 컴퓨터공학과)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모교 교정에서 만나 친목을 다지며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오프라인 대바자회를 열지 못해 아쉽다”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행사인 만큼 기대와 함께 걱정도 된다”고 밝히며 대바자회 준비를 위해 땀방울을 쏟아낸 동창회 임원들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준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대바자회를 통해 모두 힘을 합하고 위로하며 연대와 나눔 활동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인과 춤장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사처럼 내년에는 모교 교정에서 시끌벅적한 대바자회 풍경이 되살아나길 기원해 본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정말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은 인생의 큰 보람이자 축복



9월의 어느 주말 오후, 청담동 앙스돌 빌딩에서 안윤정(독문 69) 동창을 만났다. 마침 논현동 '앙스모드' 건물에 있던 원단과 사무집기를 새

로 마련한 춘천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날이어서 오전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듯했다. 안 동창은 요즘 (주)한아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브랜드 '디누에(D.NUE, 디자인+누에)'의 이름처럼 의상에서 먹거리까지 망라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누에는 실크를 상징하면서도 뽕잎을 연상시키잖아요. 뽕잎으로 차를 비롯해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착안한 브랜드명이에요."

안 동창은 현재 패션디자인 제조사 (주)사라패션과 유통업체 (주)한아인터내셔널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 CEO다. 특히 사라패션의 '앙스모드'는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고급 여성복 브랜드의 대명사다.

지난 2015년 제29회 섬유의 날에는 국내 패션문

화 발전과 세계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그동안 받았던 각종 장관상까지 합치면 8번째 수상이다.

### 여성 패션계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

'문과면 법대, 이과면 의대'가 최고로 여겨지던 시절, 안 동창은 집안의 기대를 안고 모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다 입시를 3개월 앞두고 돌연 진로를 바꾸기로 맘먹었다. 유난히 비위가 약했던 탓도 있었지만, 평생 하얀 가운만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의대 공부를 그만둔 더 큰 이유였다. 의대를 준비하며 독어를 공부해둔 덕에 1965년 모교 독문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를 좋아했던 안 동창에게 다소 엄격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독문학은 맞지 않았다. 진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즈음 패션에 눈길이 갔다.

"기성복이 흔치 않아 맞춰 입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옷을 입곤 했는데, 디자인이 맘에 드는 수입

웃은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싶어 직접 옷을 수선하기로 하고 의상을 공부하기 위해 국제복장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것도 부모님 몰래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미처 몰랐어요.” 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이하 KFDA)에서 실시한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는가 하면, 참가했던 패션쇼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자, 패션 사업을 하면 성공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마침내 집에는 친척 언니를 도와주는 거라고 둘러대고 작은 의상실을 차렸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대학원 공부까지 한 딸의 선택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았다. 이것이 1975년 맞춤복 제작 및 판매로 문을 연 ‘안윤정 부띠끄’의 시작이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은 1979년 국내 최초 부인복 디자이너 브랜드 ‘앙스모드’ 설립으로 변곡점을 맞이한다. 맞춤복이 아닌 기성복 시장에 뛰어든 것. 그와 동시에 롯데·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입점을 계기로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성장세를 이어갔다. 백화점 입점 때 안 동창은 우후죽순 난립하던 부인복 사이즈를 국내 최초로 한국형 표준 사이즈(66, 77, 88)로 정착시켜 여성 기성복 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 이것은 여성 패션계

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안 동창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다녔다. 기성복 표준 사이즈를 창안한 것 외에도, 1993년 당시 보수적인 정치계에서 여성 환경처 장관이 국회에 갈 때 최초로 바지 정장을 입도록 제안해 ‘바지를 입은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사건으로 뉴스 매체가 떠들썩했던 일화도 유명하다.

### **앙스모드가 추구하는 패션문화**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앙스모드’를 이끌던 안 동창은 1986년 (주)사라패션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기성복 제조와 판매 사업에 매진했다. 맞춤옷을 제작했던 안 동창만의 노하우로 큰 사이즈의 부인복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부인복 패션을 주도했다. 당시 고급 여성복을 찾는 고객에게는 앙스모드가 단연 최고였다. 점차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1998년에는 백화점 유통만 전담하는 (주)한아인터내셔널을 설립한다.

‘앙스모드’가 ‘마담앙스’로 불리게 된 사연도 흥미롭다. 1980년대만 해도 전업주부들이 백화점에 가서 고급 옷을 사는 것은 사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앙스모드가 고급스럽고 편안하면서도 제값을 다하는 옷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명 ‘마담’ 사이즈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그 바람에 롯데백화점에서는 ‘앙스’에 부인복을 암시하는 ‘마담’을 붙여 아예 ‘마담앙스’로 브랜드명을 바꿔버렸다.

옷을 만들 때 안 동창은 저마다 체형과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을 만큼 선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의 꼼꼼함과 세심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손님에게 흡족함을 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는 그의 경영철학은



기성복을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옷을 입는 사람이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옷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다. 안 동창은 1980년에 결혼,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현재 안 동창의 재능과 감각을 이어받은 두 딸은 2015년 컬렉션숍 ‘레하(LEHA)’를 런칭해 운영 중이고 막내아들은 미국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전공한 후 현재는 국내에서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다. 큰 딸 유한나(소비자 09) 동창은 디렉터로, 작은딸 유리나(장미-패션디자인 07) 동창은 디자이너로 의기투합해 창업한 ‘레하’ 역시 청담동 앙스돔 빌딩 2층에 자리잡고 있다. 안 동창은 “딸들과 같은 길을 걷다보니 서로 의지가 되고 대화가 통하는 모녀지간이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한다.

패션디자이너계의 양대 산맥인 고(故) 최경자(KFDA 초대 회장) 선생과 고 김경애(KFDA 2대 회장) 선생은 안 동창이 마음에 빛을 진 고마운 선배들이다. 그분들을 옆에서 도우며 국내 패션문화를 이끌던 안 동창은 18년간 회장을 지낸 김경애 선생의 뒤를 이어 KFDA 회장(1985~91년)을 맡게 됐다. 당시 73세의 김경애 선생이 39세였던 안 동창에게 회장직을 넘겨준 일은 모 일간지에 ‘패션계 70대에서 30대로’라는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세간의 화제를 낳았다. 1992년에는 상공부 산하 한국패션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부회장을 맡았다. 그 후 2007년 다시 한번 KFDA 회장에 오르면서 자타공인 국내 패션계의 ‘대모’ 같은 존재가 됐다.

게다가 여성 기업인의 경영 활동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2002년 부회장직을 시작으로, 2003년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 2007년 회장을 역



앙스모드 패션쇼 장면

임했다. 안 동창은 정부와의 중간 기점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여성 기업인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굵직굵직한 자리에 앉게 되자 주변에서 질시의 눈총도 많이 받았다. 국내 패션계에서 내로라 하는 디자이너로 입지를 굳히면서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안 동창은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 이화에서 배운 베풀의 기독교 정신

안 동창은 위기 때마다 기도의 힘을 빌린다. 큰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시작한 새벽기도를 지금

레하 사무실에서 안윤정 동창 세 모녀가 함께했다



까지 20여 년간 이어오고 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을 믿는다. 처음엔 목적이 있어 새벽기도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도가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안 동창이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였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 유교 집안에서 자란 안 동창은 일주일에 세 번이나 참석해야 하는 채플이 부담스럽고 싫었다. 어린 마음에 채플 때문에 공강 시간에 영화도 못 보러 간다면 반감도 많이 품었다.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세상사에 부대끼면서 서서히 깨졌다. 자신이 누린 혜택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준 이화의 기독교 정신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안 동창은 1984년 홈커밍퀸(독문과 동창회여왕)과 1999년 ‘올해의 이화인’ 모두에 선정됐을 만큼 모교를 아끼고 사랑한다. “학부 졸업 후 교육대학원과 산업디자인대학원까지 합하면 8년 반 동안 모교를 다닌 셈이에요. 게다가 25년여 간 동창회 일에도 꾸준히 관여해왔어요. 제 인생에 이화만큼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으니 제가 이화에 남다른 애정을 느끼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지요.”

안 동창은 모교에서 배운 대로 베푸는 삶을 실천

글로벌 인도주의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전문위원 위촉식(2015년)



하려 애쓴다. 1992년부터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후원해 온 것도 그중 하나다. 안 동창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쳤던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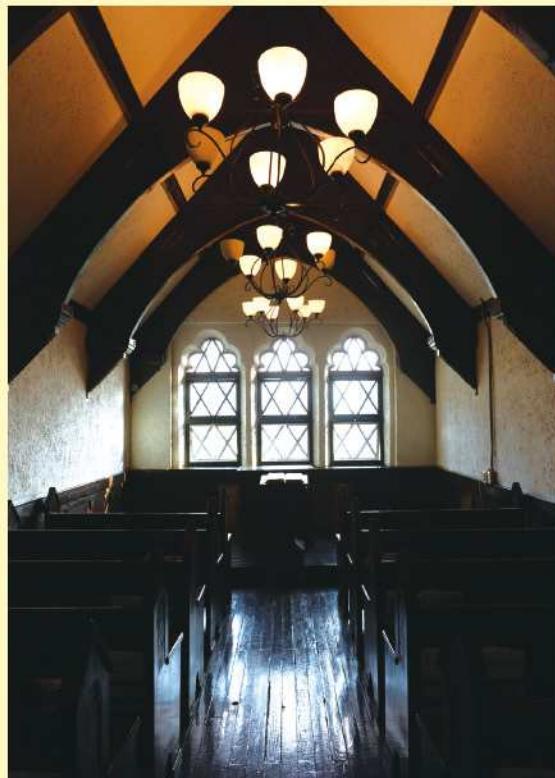
요즘 안 동창의 기도 제목은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내고 후원하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이어가게 해주십사 기도한다. 안 동창은 재단 설립 이유에 대해 “그 선교사들을 통해 제가 못다 한 전도의 사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모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안 동창은 후배들에게 “전공에 얹매이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언제든지 진로를 바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고 조언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일에 매진하는 것만큼 삶의 큰 보람이자 축복도 없다는 얘기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안 동창은 자기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창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생 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졌을 때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맞아요. 사업을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면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방 지치고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안 동창의 75년 인생 역정에서 우리나라온 ‘찐’ 당부의 말에 새삼 고개가 수그려졌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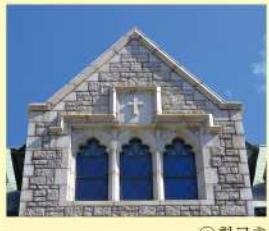
## 하나님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공간



©이대 홍보실 제공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진행 중인 모교 캠퍼스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다. 따사로운 가을 햇빛 아래 바쁘게 강의실을 찾아다니던 재학생들의 부산한 발걸음과 친구들과 나누는 정답 대신 매미 울음만 간간히 들리는 캠퍼스에는 빈 강의실들이 외로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제법 선선해진 가을바람을 느끼며 이화 캠퍼스의 심장인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본관 건물 위 정면에 보이는 작은 십자가가 이곳이 기도의 산실임을 알려준다. 빼곡거리는 나무 바닥을 조심스레 걸어서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중간 지점 진한 갈색의 낡은 나무문 앞에 ‘여기는 조용히 묵상과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다.

애다 기도실은 이화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처이다. 이곳은 1931년 이화여전 재학 중에 하늘나라로 간 김애다 동창을 기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김애다 동창은 이화여전 재학 시절 신촌 교사 이전 문제로 고심하던 아펜젤러 교장과 함께 교사 이전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 아펜젤러 교장에게 큰 힘



©황규호

을 주었다. 김 동창은 5년 동안 투병하면서도 늘 학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학업을 끝내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는데 당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그의 신앙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현금을 모았고 본관이 완성되



던 1935년에 본관 3층 이 자리에 애다 기도실을 마련했다.

일곱 평 남짓 작은 기도실에 들어서자 오랜 세월의 흔적과 마주하게 된다. 짙은 갈색의 넓고 빼걱거리는 바닥, 그 위에 여섯 개의 소박한 의자가 양쪽으로 놓여 있다. 마주 보이는 창문 앞의 진갈색 강대상과 그 위에 펼쳐진 큰 성경책은 높은 타원형의 천장 몰딩 그리고 등경과 어우러져 소박한 기품이 느껴진다. 맨 앞줄 의자 한쪽에는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가져다 놓은 '기도 제목'이 프린트된 유인물, 기도 노트, 기도 수첩 등이 놓여 있다. 기도실을 찾는 동창들을 위해 필기도구까지 갖춰 놓은 마음 쓴씀이 다정하고 세심하다.

이화의 기도처는 교목실이 관리하며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1년에 몇 차례 이화의 기도처를 선교부원들이 돌며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오래된 애다 기도실이 녹슬지 않고 이 자리에 여전히 남아 사람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노고 덕분이다.

동창들의 염원이 담긴 기도 노트를 조심히 들추어 보았다.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할머니의 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도로 달래는 재학생, 병마와 싸우며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글귀들이 보인다. 기도줄을 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감해지고 당당해지며 평안을 얻게 되는 동창들의 마음이 느껴진

다. 이 넓고 오래된 기도실이 엄마의 품처럼 아늑하고 영원의 바다처럼 넓고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화 동창들의 간절한 기도가 곳곳에 스며든 때문 아닐까.

잠시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 안의 나를 돌아보고 싶을 때 찾으면 좋은 곳, 넓고 오래된 기도실에서 조용한 평화와 안식을 만난다.



©황규호



※이화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화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리더십'은 이화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모교 캠퍼스의 기도처를 찾아 조용한 침묵 속에서 위로를 얻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간구가 만나는 기도처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 속에 안식을 느끼며, 미래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

사진·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이대 홍보실 제공



EWHAWOMANSUNIVERSITY

## 위로의 상징 이화 마크가 새겨진 기념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봄부터 미뤄왔던 동창 정기 모임이 가을에도 열리지 못하고, 활발하던 단체 SNS도 부쩍 조용해졌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속에 풀 방법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면서도 심리적 거리는 가까이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화의 상징 배꽃의 꽃말은 ‘온화한 애정’, ‘위로’와 ‘위안’을 의미한다. 모교 마크가 새겨진 책갈피를 책 사이에 꽂아 두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코로나 우울감을 잊어 보는 건 어떨까.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기념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별도의 온라인 기념품몰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총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 동창의 날 또는 대바자회 행사에 가끔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총동창회 기념품은 모교 생활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이화굿즈’와는 별개의 라인이다). 학생이 아닌 동창들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고민하고, 또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모교 상징이 들어가며, 가성비 역시 고려하여 상품을 제작한 총동창회의 새로운 기념품을 소개한다.

### 1. 석고 방향제 100 mm × 100 mm × 20 mm



올해 출시된 석고 방향제는 흰색의 배꽃 모양이다(석고에 향이 나는 원료를 넣어 굳혀 만들어 걸어서 장식하는 형태이다). 발향 기간은 1~2개월 정도 지속되며 향이 다 날아간 경우 가지고 있는 향수나 리필액을 뒷면에 뿌려 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가격은 개당 18,000원.

### 2. 우산 85 mm × 220 mm



모교 마크가 심플하게 찍혀 있는 초경량 우산은 블랙, 네이비, 코랄, 민트, 핑크 다섯 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은색의 메탈 손잡이에 접이식으로, 슬림하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다. 가방 속에 쑥 넣고 다니면 우산으로 혹은 양산으로 안성맞춤이다. 개당 16,000원(다섯 개 구입시 개당 15,000원. 열 개 구입시 개당 13,000원으로 할인).

### 3. 배꽃카드(가로형) 175 mm × 85 mm

바람에 부드럽게 훌날리는 배꽃 모양을 일러스트한 단아한 모양의 배꽃카드는 연하늘색, 연분홍색, 흰색의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봉투 곁면에도 배꽃 그림

이 새겨져 있어, 봉투만으로도 어여쁘다. 카드와 봉투 다섯 개 한 묶음을 5,000원, 봉투만 다섯 개 한 묶음을 4,000원에 판매한다. 땡큐카드를 찾고 있다면, 은근하게 이화를 드러내는 이 배꽃카드를 추천한다. 지폐가 알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아들딸, 손자 손녀에게 기쁜 날 금일봉 봉투로도 손색이 없다.

#### 4. 북마크 105 mm × 25 mm

이화 마크와 영문 로고가 새겨져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메탈 소재로 골드와 실버 두 가지 색상이 있다. 각 4,000원.

#### 5. 멀티 파우치 360 mm × 310 mm × 120 mm

통풍이 잘 되는 기능성 망사 원단 및 생활 방수 원단을 사용하여, 양면으로 의류를 보관할 수 있다. 분홍과 하늘색 두 종류로,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의류를 정리하거나 서랍 안에 보관이 용이한 넉넉한 사이즈이다. 개당 15,000원.

#### 6. 바람막이 재킷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으로 만든 바람막이 재킷은 적당한 두께로 사계절 두루 활용하기 좋다. 원쪽 어깨에 이화 마크가 있다. 해외 거주 동창들이 단체복으로 대량 구매할 만큼 인기 품목이다. 카키, 파랑, 분홍, 연두 네 가지 색상 각 38,000원.

#### 7. 다용도 가방 450 mm × 370 mm × 170 mm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접이식 형태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혀져(200mm × 170mm) 여분의 보조가방으로 휴대가 용이하다. 펼쳤을 때 넉넉한 사이즈에 튼튼한 재질이다. 가격은 12,000원.

#### 8. 포스트잇 80 mm × 80 mm

각종 홍보물로 받은 메모지가 넘쳐나지만 모교 마크를 깔끔하게 인쇄한 포스트잇에 소중한 메시지를 담으면 더욱 뿌듯할 것 같다. 가격은 각 1,000원.

이 밖에도 총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품으로 제작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색동가방(가격은 7,000원)과 실리콘 컵, 쟁반도 꾸준히 나가는 아이템이다. 빨간색 동창 수첩은 11월 16일(월)부터 구입 가능하다. 총동창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거나, 사무실에 전화로 주문하면 택배 발송도 가능하다. 대량 주문 시 할인 혜택도 있다(수첩은 제외).

- 문의 연락처 : 02-3277-3386~7 ■ 사무실 :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3호
- 운영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 축·하·합·니·다

출연도 순서로 계계



## 김의정(성악 61) 동창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동창이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김 동창은 2018년 인성교육진흥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각계 인성교육 정책과 보급에 앞장서 왔다. 김의정 동창은 조계종 종양신도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궁중다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 문용자(의학 62) 동창 **'국민미션 어워드'** 수상

대한의사협회 고문 문용자 동창이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9회 국민미션 어워드' 의료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용자 동창은 사재를 털어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을 설립하고, '통일과 나눔' 공동 대표와 '북아해사랑단' 대표 회장을 맡아 북한 보건의료 교육,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통일 보건의료 학술연구·통일교육 등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재건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해 왔다. 시상식은 7월 6일(월) 국민일보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윤석완(의학 76) 동창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에 취임**

윤석완 동창이 제30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윤석완 동창은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이화의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중앙대의원, 동대문구의사회 명예회장, 이화의대동창회학술연구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선임

9월 1일(화)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성희 동창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2년 9월 4일까지로, 제19대 회장에 이어 제20대 회장에 재선임된 것이다. 남 동창은 2002년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 이상인(작곡 78) 동창 **성결대학교 총장서리** 취임

이상인 동창이 2020년도 성결대학교 총장서리로 취임하였다. 이 동창은 성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대외협력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 이명선(융합보건 81) 동창 **국무총리 표창 수훈**

6월 23일(화), 모교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명선 동창이 국민 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및 서울통일교육센터 출범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명선 동창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공동의장, 국방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이숙진(커미부 86) 동창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 취임**

이숙진 동창이 스포츠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선수 인권 보호 및 스포츠계 비리 척결을 위해 8월 5일(수) 출범하였다. 이숙진 동창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 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이다. 임기는 3년이다.



### 유명순(영교 87) 동창 **한국씨티은행 행장 직무대행 선임**

8월 18일(화) 열린 한국씨티은행 임시 이사회에서 수석부행장 유명순 동창이 행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되었다. 유 동창은 9월 1일(화)부터 차기 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은행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가장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한국씨티은행에서 첫 여성 행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명순 동창은 한국씨티은행 다국적기업금융본부장, JP모건 서울지점 기업금융총괄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기업금융(IB)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았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와 영업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김수연(교육 88) 동창 **영산대학교 부총장 취임**

9월 1일(화) 김수연 동창이 영산대학교(와이즈유) 부총장에 취임하였다. 김수연 동창은 모교 교육학과 동창회 회장이자 2018 올해의 이화인이기도 하다. 김 동창은 인천재능대학교 교육혁신센터장을 역임하였다.



### 김영주(의학 88) 동창 **보구녀관 초대관장으로 부임**

9월 1일(화) 이대서울병원 내 보구녀관 초대관장으로 김영주 동창이 부임하였다. 보구녀관은 1887년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구녀관(普救女館)이란 이름은 1888년 고종이 하사했다. 지난해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보구녀관은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운영된다.



### 임세은(경제 06) 동창 **청와대 부대변인 취임**

9월 2일(수) 임세은 동창이 청와대 부대변인에 임명되었다. 임 동창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등을 거치고, 지난 5월 초 청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청년소통정책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서 여성과 청년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20년간 노숙자들을 돌봐온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 최영아 동창

## “가난과 질병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노숙인을 지켜보며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가족의 형태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임을 깨달았어요”

흔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1년에 한번 구세군 자선냄비에 돈 몇 푼 넣거나 어느 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게 전부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거리의 노숙인을 보면 멀리 떨어져 걷거나 외면하기 일쑤다. 그들을 가엽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질병을 치료해 주고 주거를 마련해 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여긴다.

올해 모교에서 선정한 ‘자랑스러운 이화인’ 최영아(의학 95) 동창은 지난 20년간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보듬고 돌봐온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존재다. 여러 무료진료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로서 소외된 약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성 노숙인 지원쉼터 ‘마더하우스’를 설립해 노숙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재활을 돋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다.

### 의사로서 소외된 이웃, 특히 노숙인들을 돋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의예과 2학년 때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의료인 선교단체) 소속 학생으로 청량리 노숙인 무료배식 봉사를 나갔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빗물 범벅이 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을까’였어요. 그 연장선에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살 집은 물론 가족도 없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어 이 땅의 주민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노숙인은 그 스펙트럼이 광범위해서 시대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달라요. 요즘에는 주거가 분명

한데도 거리로 나와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재개발, 철거 등으로 살 집이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과거에 노숙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국가로부터 노숙인증을 받아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있는 무료급식소나 무료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그나마 숙식이 해결되고 있어요.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숙인들에게 ‘노숙인증’을 발급해 주고 의료보호 1종의 혜택을 제공해 줬거든요. 의료보호 1종이 되면 거의 무료로 공공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와 자원봉사로 여러 병원에서 헌신하셨는데 주로 어떤 병원이었나요? 여러 병원을 거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다일천사병원에서 의무원장으로 일했어요. 그 후 고(故) 선우경식 원장님의 1987년부터 무료진료를 해오시던 요셉병원으로 옮겼지요. 저의 정신적 멘토였던 선우 원장님은 영등포역 쪽방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다일천사병원을 개원할 때도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진료하면서 육아 등 집안일을 병행했는데, 2008년경

선우 원장님의 돌아가시면서 요셉병원 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1년 후인 2009년부터는 서울역 다시서기의원 원장으로 일했어요. 다시서기의원은 한국누가회 소속 의사들이 모여 세웠지만,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세운 기존의 무료진료 의원과는 구별돼요. 서울시에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던 공공 무료진료소에 병원 형식을 갖춰 의원으로 개설한 경우거든요. 의료보장제도 밖에 있는 노숙인들이 공공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보호 1종을 취득해야 하는데 다시서기의원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무료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노숙인증 취득을 도와주고 소속 동사무소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곳에서 계속 살게끔 만들어 의료보호 1종 취득까지 받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작업이었죠.

그후 2013년 은평구의 마리아수녀회 소속의 도티기념병원 내과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도티기념병원도 그런 환자들이 공공 병원으로 올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거의 문을 닫았어요. 제가 2017년 서울시립서북병원으로 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예요.

3~4년 간격으로 이런 병원들을 찾아다닌 것은 그곳에 가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코올 문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못 먹고 못 씻고 불충분한 수면으로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그야말로 다루기 힘든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 자신이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훈련과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을 배울 수 있었어요.



방호복을 입은 동료들과 함께(맨 오른쪽이 최영아 동창)

## ■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더하우스'에 대해 서도 소개해 주세요.

마더하우스는 노숙인의 자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기거할 곳이 없는 이들이 독립하기 전 까지 머물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기로 운영되었는데 노숙인들이 병원이나 시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기만 하지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은 숫자라도 길게 관계를 맺으면서 한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공동생활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회복나눔 네트워크'도 만들었어요. 법인에서는 그들이 임대주택이나 다른 거처를 얻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거나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영역을 후원받아 해결해주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훈련을 하는 분들이지요. 여러 분야의 사람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식당 운영 중인 법인과 제휴해 배달 전문 식당을 만들었어요. 운영은 그 법인이 전담하고, 우리 쪽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 ■ 본인의 저서『질병과 가난한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그 책은 제가 14년 동안 노숙인들을 진료하고 지켜본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 그들이 가진 병은 무엇이고 그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노숙인들이 겪는 가난과 질병은 한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나아가 그들을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품어야 하는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해결책이 뭔지는 어렵겠지만, 사람을 돋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노숙인들을 계속 만나왔고 그들을 돋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인생을 너무 깊이 알게 되었어요. 또 의사 출신이나 잘 살았던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가족의 형태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 어질 일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뒷 받침되어야겠죠.

## ■ 그동안 만났던 여러 노숙인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분이 있었나요?

(A4지에 색연필로 그린 편지 그림을 보여주며)  
이 그림을 그려준 분은 다일천사병원에서 처음 만난 환자였으니 20년도 넘게 만나왔네요. 이분은 40대에는 잘나가는 만화가였는데 60대인 지금은 오랜 노숙 생활과 알코올로 인해 간경화, 결핵, 뇌졸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약을 먹으며 생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20년이 지나도 술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찌면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옆에서 잔소리해 주는 가족이 있어야 그것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의 장기는 제 기능을 하는데 정신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은 혼자 살아왔던 기간이 오래돼서 다른 사람보다 그런 증상이 일찍 찾아온 탓에 의사소통이 더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가 보장되도록 사회가 바뀌어 예전보다 병원도 잘 다니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 나이가 젊고 스스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룹홈에 기거하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면서 노숙 생활을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노숙인 치료와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거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재개발



지난 5월 29일(금) 모교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았다

이나 전월세가 상승 등으로 기존에 살던 곳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거가 안정되면 병이 덜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거리나 시설에서 일상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곳에서 기거하면서 추위를 피하고, 잘 씻고, 잘 자고 하면요. 취약계층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모든 지원 활동이 주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 질병도 잘 치료가 돼요.

그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보장되는 삶을 살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질병이 반복되고 재원도 낭비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정책도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개선될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생각해요.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예술과 생활 속에 녹아든 영성을 표현하다

모교 홈페이지를 보면 이화에는 ‘여성의 인격화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남겨져 있다. 그로 인해 이화는 한국 여성사와 민족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 ‘기독교 정신과 진선미의 이념을 실천하는 개척자적인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써온 이화’의 노력은 또한 수많은 ‘최초’를 만들어 냈다 (<http://www.ewha.ac.kr/ewha/intro/object.do>). ‘섬김과 나눔’의 이화의 기독교 정신이 이화를 거쳐 간 수많은 동창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이화인’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이화인 모임 탐방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이화기독미술인회(ECAA, Ewha Christian Artists Association)’를 찾았다. 현재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신미선(서양 85) 동창과 2대 회장을 역임한 김경은(회화 66) 동창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2015년 창립전을 연 이래 매년 성경 속 테마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명의 모교 출신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모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교육학과 출신으로 타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회원도 있어 현재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화 동창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임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경은 동창과 신미선 동창의 역할이 컸다. 40년 전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던 김경은 동창은 미술이라는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고자 이를 함께할 기독미술 작가를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었다. 30년이 지나 반포에 살던 김경은 동창이 판교로 이사한 후 가입한 성남미술협회에서, 분당에 살던 신미선 동창과 만나게 되었다. 이화 선후배로 만나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신들이 오래도록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독미술에 대한 소명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미션스쿨인 이화에 기독미술 단체가 없다는 것이 의아할 지경이었다.

믿음으로 의기투합한 이화의 선후배는 같은 뜻을 가진 동창들을 찾아 이화기독미술인회를 결성했다.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초대 회장으로 원경자(회화 65) 동창을 추대하고 양재동 횃불회관



2020년 '로고스 100호전' 전시회 오픈에 참석한 이화기독미술인회 회원들과 귀빈들

갤러리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전에는 25명이 참여했다. 첫해에는 믿음을 지닌 동창들이 모여 그룹전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지만, 두 번째 전시부터는 주제전을 기획했다. 전시 1년 전부터 회원들이 각각 성경의 한 테마를 주제로 제시한 뒤 투표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로 각각 100호(162.2cm × 130.3cm) 작품을 그려 그룹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최소 20명이 100호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규모의 전시장을 찾다가 당시 원경자 동창이 전임 관장으로 봉사했던 일원동 남서울교회 밀알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밀알미술관에서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예술과 생활 속에 녹아든 신앙 표현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기독교의 영성과 작품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예술이든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쉬지 않고 봉사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그러면 중국에는 지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술가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

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라고 신미선 동창은 말한다.

예술의 근본적 모티프는 호기심이다. 하나님 이 이를 허락하셨다. 개신교에서는 아름다움의 다양성과 자유를 추구하면 주목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작품을 우상이라 여기기도 했던 개신교의 예술에 대한 관점은 기독미술 분야가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는 여러 기독미술 단체가 있다. 이화기독미술인회를 만든 회원들도 여러 기독미술 단체들에 중복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지만 교파나 교단, 학교 등을 초월하고, 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한계성을 느끼고 있었다. 단체에 속한 몇몇 이화기독미술인들은 자신이 왜 작가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시고 왜 이화를 거쳐 가게 하셨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화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미션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했다.

“이화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했고 암울한 바닥에 있던 여성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화인으로서 작품에 복음의 소리를

담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작 기독미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요. 신앙 따로 그림 따로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양떼? 풀밭? 기독미술에 대한 제한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이화에 기독미술을 깊이 있게 다를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이 없다는 점도 안타까웠지요. 기독교를 믿는 이화인으로서 작가로서, 예술성을 고민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에 영성을 담아 작품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함께 모였지요.”

####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한 테마별 전시

이화기독미술회 회원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했다. 매달 예배로 모이고 1년 후 있을 전시를 기획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기에 주제를 공부할 때 당시 개신대학원 교수인 장원철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매달 목사님께 고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창립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를 정해 전시를 준비했다. 2회 정기 전시회의 주제는 시편을 테마로 하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선정하여 ‘하나님의 식탁 100호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했다. 3회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100호전’, 4회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 100호전’, 5회는 사도행전으로 ‘마르투스 100호전’을, 6회는 요한복음으로 ‘로고스 100호전’을 기획, 전시했다. 창세기 강해 설교집이나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전시회 오픈예배에서 동창들이 찬송가를 합창하고 있다

탐구한 저서 등 말씀과 관련된 교재를 읽고 토론하며 말씀을 묵상했다.

이처럼 성경을 테마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20여 명의 작가가 100호 그림을 전시하는 것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독교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했는데, 특히 ‘하나님의 식탁’이 재미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가 육의 식탁을 늘 꿈꾸며 이를 풍성하게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차려 주신 식탁을 발견하자는 주제였다. 4회 테마였던 요한계시록은 신비주의나 종말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 시기에 출판한 책을 함께 읽고, 강의를 들으며 준비했다. 작년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며 성경을 보았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공부한 올해는, 모교의 ECC대산갤러리에서 먼저 전시하고 밀알미술관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안타깝



전시회 오픈에 참석한 조형예술대학 신영선 동창회장과 임원들

계도 코로나19 때문에 대산갤러리 전시는 무산되고 말았다. 전시는 항상 모교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매년 5월에 개최된다. 올해 밀알미술관 전시는 5월 대산갤러리 일정에 연이어 계획된 6월에 전시를 했다. 내년에는 레위기, ‘예배드림 100호 전’을 준비 중이다.

#### 20여 명의 회원이 매년 100호 작품 선보여

한 주제에 대하여 20명 이상의 작가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작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회원들도 매우 재미 있어 한다. 처음에는 100호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비용의 문제가 컸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자부담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서 활동한다. 100호 작품을 촬영하려면 운송을 해야 하고, 다시 가져와서 액자를 맞추고 전시 전날 전시장으로 실어 나르는 등 큰 작품을 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 후배들에게

활동을 독려하느라 한 구좌 후원하듯이 생활이 안정된 선배들이 한 명의 회비를 더 내주어서 젊은 후배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으면 작가 생활이 힘들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예술 분야는 월급이 없고, 그럼도 매번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매년 100호 작품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30~40대 후배들은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작품 활동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비용 문제는 회원 누구나 갖는 고민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회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미술학원을 하면서 계속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작가들은 옷을 사 입고 치장을 하는 기쁨보다는 창작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하지요.”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2대 회장 김경은 동창은 나이들수록 이러한 작품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년의 삶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해지거든요. 특히 우리 회원 중 신금례 선배님은 1949년 졸업한 9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작품 출품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이화기독미술인회는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 2021년 레위기, 2022년 히브리서, 2023년 로마서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2024년에는 창립 10년을 기념하여 ‘성경을 그리다, 100호 1기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는 것이다. 20명 이상의

작가들이 해마다 자신이 그렸던 8개의 100호 그림을 시리즈로 전시하여 총 160여 개 이상의 작품을 올리는 100호전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5년에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 등 말씀을 주제로 그리고 10년 후인 2034년에 2기전을 하고자 한다. 김경은 동창은 낼모레가 팔순이지만 앞으로 20여 년은 비전을 품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해맑게 미소를 지었다.

### 작품을 통해 드리는 예배,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화기독미술인회 회원들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가가 중요하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김경은 동창은 말한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전시 목적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그림을 보며 그리스도의 빛이 펴져 사람들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밖에 없지요.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갑니다. 편한 길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지지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화기독미술인회가 전시를 계속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음악인이 음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미술인들은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김경은 동창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이유는 몰라도 이 그림을 보면 평안해진다면 이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우울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전시에서 경험했고,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세월이 지나면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즐겁고 행복하며, 생명을 느낍니다. 제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그림에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신미선 동창은 전시 기획, 행정, 도록 편집 등 몇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신 동창은 서양화과 출신으로 순수 미술을 전공했지만 디자인, 기획에도 재능이 있다. 좋은 전시에는 큐레이터의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전담하며 봉사하고 있다.

신미선 동창은 “성남미협에서 오랜 기간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했어요. 뒤돌아보니 이화기독미술인회를 위해 미리 훈련을 받은 듯해요”라며 “회원의 권리만 찾기보다 단체의 할 일을 돋다 보니 자연히 사회적 역할을 담당



(왼쪽부터) 장원철 목사, 김경은·신금례·신미선 동창

하며 많은 일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배우는 동안 기다리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신 일을 저희를 택하여 이루시고, 저희를 쓰셔서 계속 전시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 이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품 **하고파**

김경은 동창은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고백한다.

“우리 학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진선미라는 교표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화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화기독미술인회의 정체성은 복음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룹전에서 매해 100호 전시를 계속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원이 많아져서 함께 100호를 전시할 갤러리가 없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화기독미술인회는 100호를 고집합니다. 보관 장소가 없어 그림 작업이 어렵다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계

속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독미술 활동을 하면서 보니 학교에서 기독미술이 학문적으로 탐구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화가 마땅히 이 일에 앞장서야 하며 이화의 젊은 세대가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모교에 기독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담아낼 석·박사과정이 마련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동창과 후배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올해부터 모교에서도 전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된 점이 아쉽다. 상황이 정상화 되면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미술 작품을 교인들끼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작품, 작품의 느낌이 좋은데 알고 보니 기독미술이고, 성경 말씀이 메시지인 예술 작품을 통해 세상과 만나게 되길 회원들은 원한다.

김경은 동창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림이 제 욕망 때문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화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이에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심심하고 우울할 새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유아용 가방 특허 낸(주)도이 대표 류은정 동창

## 후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 목표예요



막 걷기 시작한 아기를 데리고 엄마 혼자 외출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아무리 아기에게 시선을 집중해도 엄마 품을 벗어난 아이는 순식간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디 들어가 편히 앉아 쉬고 싶지만 모든 식당이나 카페에 유아용 안전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일상 속 ‘필요’는 상상력을 부른다. ‘유아와 엄마가 긴 줄로 연결된다면’, ‘아기 가방이 좌석이 되고, 가방끈이 안전벨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 어떤 엄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려 상상을 현실화하고, 또 다른 엄마는 그 제품에 열광하며 구매한다. SNS는 비즈니스의 문턱을 낮췄다. 깔끔한 디자인과 미아 방지, 휴대용 부스터(유아안전의자) 등 다양한 기능으로 유아용 가방 시장에서 입소문이 난 ‘도이백(DYOI Bag)’의 출발이 그랬다. 심리학을 전공한 젊은 엄마, ‘주식회사 도이’ 대표 류은정(심리 및 경영학 복수전공 07) 동창은 육아를 하던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첫 제품을 선보였다. 유행하는 물건들을 만들어 팔다가 사라지는 인스타그램의 판매자들과는 달리 류 동창은 자신의 제품을 브랜드화했다.

### 심리학을 전공한 육아맘 CEO

DYOI(도이)는 CEO 류 동창의 애칭이자 ‘Dreaming Your Own Imagination’의 약자다. 류 동창은 첫 아이가 태어나 다섯 살이 되는 동안 아이를 키우며 제품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휴대용 부스터 겸 미아 방지 가방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으며 가방은 백화점에도 입점됐다. 만 3년 만에 눈부신 성장세를 이룬 ‘도이백’은 최근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었다. 류 동창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아동 교육 관련 출판 사업,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로운 영역의 사업도 구상 중이다.

“전 고등학교 때부터 이화여대에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대에서 저희 고등학교로 설명회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부터 학교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이대 출신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막연하게 나도 이화여대에 가서 여성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요. 그때 제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빠져 심리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기에 이대 심리학과를 선택하고 수시 전형으로 합격해 감사히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심리학은 공부할수록 재미있었다. 특히 아동, 상담 심리에 마음이 갔다. 마케팅에도 관심이 많았던 류 동창은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택했다. 대학 때는 10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할 만큼 부지런히 경험을 쌓았다.

“일단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20대에 아이를 낳아 일찍 키워놓고, 30대에 대학원에 가서 다시 심리학 공부를 하고, 40대 중반에는 심리학 교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항상 꼼꼼하게 계획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20대 초반부터 인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요.”

### 경력 단절을 선택하다

류 동창의 첫 직장은 ‘좋은’ 직장이었다. 대기업의 안정된 수입과 정시 퇴근, 제도화된 복지 혜택 등 보상이 따랐다. 하지만 이때 류 동창이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 비전공자로서 제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장기적인 커리어를 계획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류은정 동창은 당분간 육아에 집중하고 아이가 크고 나면 새로운 커리어를 갖겠다는 결심으로 ‘경력 단절’을 선택했다.

출산과 육아에 몰두하며 집에만 있다 보니 이전에 하지 않던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었다. 아이가 입은 옷을 예쁘게 찍어 올리니 기업에서 아기 옷을 협찬해 주기도 했다. 소일거리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존재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되면서 흥미를 느꼈다. 인스타그램이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고 ‘나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일하면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 애들을 재우고 일하기 시작하면 잡념이 사라져요. 일하지 않으면 치지는 것 같고, 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육아에 좀 더 비중을 두다 보니 일을 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 안타까워요. 일만 집중해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일과 육아 둘 다 신경 쓰다 보니 바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육아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희생해서 아이에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놓을 수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온몸으로 부딪히며 사업을 배우다

패션쪽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류 동창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전혀 지식이 없었다. “그나마 사촌 동생 중에 패션쪽을 전공한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과 일단 동대문 시장에 가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지요. 매일 아침 아기를 맡기고 온종일 동대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어요.”

제품을 잘 만들어 줄 공장을 찾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류 동창은 실과 원단을 갖고 다니며 열 군데가 넘는 공장을 찾아 눈앞에서 박아 봐 달라고 하여 그중 제일 맘에 드는 곳을 선택했다. 원래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성격인 류 동창은 모든 자재들을 직접 골랐다. 지퍼 손잡이, 박음실 같은 것도 수십 가지를 하나하나 원단에 대보았고, 많은 점포를 돌아다니며 비교해 보았다. 이렇게 온몸을 부딪히며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며 모든 것을 개발할 때까지 반년 정도 걸렸다.

“가방 제작은 기술자의 실력도 좋아야 하고 기계도 좋아야 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방 제조 공장들은 인건비가 비싸 영세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공장은 그중에서는 규모가 제법 커서 재봉틀 수도 많았고, 제가 원하는 스티치를 힘 있게 잘 박을 수 있는 좋은 재봉틀을 보유한 곳이었지요. 그럼에도 개발 초기 품질이 안정되기 전에는 가방의 뼈뚤뼈뚤한 스티치를 제가 일일이 굽은 바늘로 일자가 되게 펴서 품질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했어요.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반면, 저는 품질을 포기할 수 없어 전 제품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어요.”

류 동창이 개발한 세련된 디자인과 고퀄리티의 유아 가방은 국내 기존 유아용품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끊임없이 유사품이 쏟아져 나왔다. 제품이 출시되니 수많은 엄마들이 네모난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거나 비슷한 모양에 소재를 달리한 제품들을 내놓았다.

“휴대용 부스터 겸 미아 방지 가방이라는 기능성은 특히 등록을 했기 때문에 따라 하지 못했지만, 가방의 디자인만을 비슷하게 바꾸거나 제품의 컨셉을 따라하는 유사 제품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는 사람이 많았지요.” 류 동창은 눈앞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전체 사업의 틀을 착실하게 만들어 갔다. 특



도이백을 맨 류동창과 딸

히, 디자인 등록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변리사인 남편이 큰 도움을 주었다. 성장 단계에 맞춰 회사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갔다.

“아직은 회사의 규모가 작으니 제 마음에 드는 수준의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어 그때그때 업무를 해나가고 있어요. 주로 아기가 자는 동안 일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의 저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적합해요. 내년부터 신규 사업 분야 포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투자를 받아 회사 규모를 키우고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합니다.”

### 매사 원칙대로 추진, 철저한 공부로 자신감 획득해

“유아용품은 KC 인증 등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들이 많아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에요. 성인 물건을 만들 때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팔 수 있고 조금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도 관계없겠지만, 유아용은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물건을 만들어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백화점 입점 수수료 등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을 들여 저만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나, 수출을 위해 프랑스 메종 오브제(Maison & Objet) 전시에 참가했던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투자였어요.”

류 동창은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계속 사업에 투자했고,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초기에는 둘째 출산 계획이 있어 규모를 작게 유지했고,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얼마 전 법인으로 전환했다. 류 동창은 개인사업자로서 먹고 사는 수준의 사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용도 창출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매사 정석대로 하다 보니 뭐든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법인 전환 과정도 마찬가지였지요. 제가 세무사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스스로 안심이 돼요. 세무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했지만 전 뭐든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무언가를 하면 항상 이렇게 했던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창업자가 회사에 남아 있어야 회사가 잘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의 정성과 열성을 쏟는 것은 내 회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류 동창은 지금도 역시 고민이 육아와 가정에 더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확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밖에 못 했다’며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도전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알고 보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예전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남성 중심 산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4차 산업 시대인 지금은 왜 보다 많은 여성 대표들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며 그 역할을 내가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 심리학 전공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목표

류 동창은 30대에 애초에 계획한 심리학 공부 대신 사업을 택했다. 이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보다는 사업에 심리학적인 것을 결합할 생각이다.

“심리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기회 조차 갖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요. 직업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아보니 공급하는 인력의 질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생계도 중요하니까 직업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어린 나이부터 심리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아이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거나 외애를 키우다 보면 정신없어서 외부의 도움 없이 그 시기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아동 심리 책이 있어도 아이 키우는 엄마가 읽고, 아이가 도움을 받고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류 동창은 사업을 하면서 시야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과 연결시켜 실행 가능성은 찾는다. 류 동창은 도이백을 하면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지원사업에 선정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신청해서 탈락하기도 했지만, 선정되고 나니 자신감이 들었다. 심사위원은 주로 50~60대 남성이었다. 심사를 받을 때마다 이들에게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

고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류 동창은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내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게 되면 더 많은 여성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도이백은 현재 국내 판매에 주력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특히 중국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류 동창은 국내 배송 시 마음에



도이백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

안 들면 반송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육아를 하면서 직구형 해외배송까지 신경 쓸 수 없어 정식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통해 해외 판로를 열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후,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하여 프랑스 전시회 매종 오브제(Maison & Objet)에 참가하는 등 착실히 수출 준비를 해오고 있다.

### 이화 동창들이 주도하는 평등한 세상 꿈꿔

류 동창은 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Slow Brand’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커지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려고 쫓기듯이 많은 신제품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든 제품에는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 하다가 ‘진짜 이것은 있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제품, 가슴에 와닿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익 창출만을 위해 제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류 동창은 무엇이든 사전에 완벽하게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리드해야 하는 유형의 리더이다.

“마케팅 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맡긴다고 해도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는 스 타일이에요. 정부지원사업 심사를 받으려 가면 전문가들에게 ‘회사를 키우려면 사람을 잘 채용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요.”

류은정 동창은 정보습득 능력이 크고 발도 빠른 편이다. 원래 그랬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방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성취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고 더 부지런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이에요. 20대에는 20대만의 생각으로 시야가 좁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민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피크라고 하는가 봅니다. 저의 자질들이 10대, 20대에는 다른 인생의 과제나 관심사에 눌려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육아기에 혼자 있으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성찰하며 자신에 대해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류 동창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며, 이제는 여성만이 전담하던 일들에도 남자를 함께 참여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혼하면서 일도 육아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화의 동창들이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아울러 앞서 경험한 선배들도 그런 사회를 향해 후배들을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총동창회 소식

## 모교에 코로나19 재학생 돋기 성금 1억여 원 전달

총동창회는 4월 10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모교 대외협력처(처장 최유미)가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에 적극 동참해 1차로 6,141만 원을 모금하여 6월 1일(월) 모교 대외협력처에 전달한 바 있다. 그 뒤 영어영문과에서 추가로 3,500만 원을 모금하여 총동창회에 전달하였고, 총동창회는 2차 기부금까지 포함하여 1억 원 가까운 모금액을 모교에 전달하게 되었다.

이번 긴급 모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으로, 모금액은 부모님의 실직, 본인의 아르바이트 중단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재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힘내라 이화'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총동창회는 이메일, 문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화 동창 및 후원자들에게 모금 동참을 적극 요청했으며 많은 이화 동창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후배 재학생 돋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짧은 시간 동안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화 동창들이 모두 내 일처럼 나서준 덕에 큰돈을 모금해 후배들을 도울 수 있었다"며 기금 마련에 동참해 준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8월 정기임원회 개최

8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참석 27명, 위임 12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8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359장을 합창 대신 피아노 반주로 들은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2020년 8월 정기임원회를 시작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중이 모이는 정기임원회가 몇 차례 순연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임원진이 모인 회의와 SNS를 통해 안전을 의논해 온 임원들은,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된 뒤에야 오랜만에 모여 현안을 토의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4월 정기임원회 회의록과 4월분에서 7월분까지 회계 보고가 각각 동의와 재정을 받아 통과되는 등 밀린 일정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안전을 토의했다.

우선 지난 행사인 정기총회와 감사찬양예배,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감사찬양예배를 주관한 성혜옥 선교부장 및 선교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성혜옥 선교부장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한 덕에 세계 각국의 동창들과 행사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동창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동창의 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전 세계 동창들의 온라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반기 주요 행사인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 행사를 임원들에게 알리고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우선 대바자회는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열기로 했다. 예년과는 다른 방식의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판매 물품에 대한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 사전 협조가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이영옥(컴공 92) 정보통신부장은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 설명하며, 9월 1일(화) 사전 촬영을 진행하는데 각 과에 할애된 촬영 시간은 총 20분, 시나리오와 콘티 및 리허설은

각 과에서 준비하여 진행하며 최종 동영상은 과별로 3분 정도로 편집될 것임을 안내했다. 유튜브 동영상 촬영이 어려운 경우 홍보 사진 30장 정도를 준비하면 총동창회에서 유튜브 동영상 제작도 대신해 준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첫 대바자회인 만큼 온라인에서 대바자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각종 질문이 쏟아졌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법률 자문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11월에 예정된 이화인의 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총동창회 법인 설립건, 황화방 운영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건 등 각종 안건도 다루어졌으며, 총동창회 후원 이사를 위한 기념품으로 방향제를 제작해 생일인 후원 이사들에게는 축하 카드와 브로치를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한편 8월 25일(화) 오전 11시 총동창회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부장회의가 열려 대바자회 진행건 등 현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대바자회에 참여하는 각 과의 홍보 동영상 제작, 물품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여러 변수를 고려하기로 했으며, 방역 수칙을 지켜서 사전 녹화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9월 정기임원회 화상회의로 진행

9월 정기임원회가 9월 10일(목) 오후 3시, 27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총동창회의 첫 비대면 화상회의였지만 평상시와 비슷한 인원이 참여한 데다 각자 의견을 나누거나 발언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다. 오히려 서로의 의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 회의록 낭독과 회계 보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가장 집중적으로 토의한 사항은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 개최 여부였다.

우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1일(화) 대바자회 판매 물품을 사전 녹화했다고 전하며 “물품 동영상 촬영에 적극 참여한 과와 지회에 감사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31개 과 및 지회가 대바자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9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판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두(오브엠)와 의상(앙스모드)을 협찬받아 온 김곡미 부장은 “작년 대바자회에서 대히트

를 한 오브엠 구두 600켤레와 앙스모드 의류 40벌을 기증받았는데 이번에도 저렴한 가격에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소수의 인원만 판매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상품을 구입할 동창은 사전에 총동창회에 연락해 시간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11월 개최 예정인 이화인의 밤은 연말에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 인원의 절반만 모인다 해도 다수의 이화 동창이 모인다는 점, 장소가 환기가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고 어렵지만 올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타 안건으로, 모교의 이화민주동산 건립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임원들은 진행 과정에서 이화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이화의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를 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화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 보구녀관에서 귀국 동창 선교사 격려 모임 가져

8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이대서울병원 외부에 위치한 ‘보구녀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귀국한 동창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다.

윤혜경(기독 76, C국 연변과기대)·송용희(유교 86, 남아시아)·김선정(영문 88, 케냐)·오주영(화학 94, Kz국)·케이트(사학 06, 중동)·김은례(대학원 15, 우간다) 총 6명의 동창 선교사들이 참석했고, 오주영 선교사의 자녀 양다원(Kz국)과 성혜옥 선교부장 이하 선교부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현재는 국내에서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박혜원(영문 79, 국내)·임경철 선교사 부부도 함께하였다.

참석자들은 담당자에게 보구녀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에스더 관련 다큐 영상을 함께 보았다. 보구녀관은 1887년 스크랜튼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부인병원이다. 고종이 이름을 지어 하사했으며, 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다. 이대서울병원 외부에 한옥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보구녀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의료 선교사들이 진료하던 곳이다.

이화학당이 배출한 탁월한 의사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으로, 세례명 에스더와 남편 박유산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원래 그녀는 보구녀관에서 영어 통역을 담당하며 의사들을 보조하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역할을 했

다. 그런데 그를 눈여겨본 로제타 훌 선교사의 제안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박에스더의 남편은 아내의 재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뒷바라지했는데 힘든 농장 일들을 감당하다 폐질환에 걸려 박에스더의 졸업시험을 석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꼭 의사가 되어야”라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굳은 결심을 하고 학위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에스더는 보구녀관에서 연간 수천 명의 환자를 쉼 없이 돌보았는데, 전국으로 당나귀를 타고 진료하러 다녔다는 일화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왕성한 진료 활동 가운데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1910년 34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박에스더 영상이 끝난 후 훌쩍이는 울음소리만 들리며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박에스더의 일생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은 동창 선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혼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에스더 다큐 영상을 감상한 이후에 보구녀관 관장인 이대서울병원 김영주 교수가 방문하여 보구녀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선교사들과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들은



자신을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피, 땀, 눈물의 결과물인 보구녀관에서 박에스더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깨닫고 배우게 해주신 점들을 나누며 각 선교지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뜨거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영주관장의 인도로 보구녀관의 각 시설들과 역사적 기념물들을 둘러보며 그 시대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맞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대서울병원 내부에 위치한 방주교회를 방문했다. 내부 천장에 방주 모양의 교회의 외관이 보이자 모두 탄성을 질렀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상징인 방주교회 안에서 원목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 동창 선교사들은 이대 총동창회 선교부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언제 선교지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각자 맡겨 주신 선교지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동창 선교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이들을 다시금 선교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다.

글·이수진(조소 05)

## 박물관, 창립 134주년 기념 ‘19세기 조선의 풍경’ 특별전 개최

8월 12일(수)~12월 31일(목) 전시, 코로나19로 온라인 전시관도 마련

모교 박물관(관장 장남원)은 이화 창립 134주년을 기념해 8월 12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19세기 조선의 풍경’ 특별전을 개최한다.

‘19세기 조선의 풍경’ 특별전은 19세기 조선의 여러 특징을 모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전시이다. 전시는 ‘문인 취미와 물질 문화의 확산’, ‘새로운 문화, 문물과의 조우(遭遇)’, ‘세속적 삶의 염원, 길상(吉祥)’, ‘요지경(瑤池景), 19세기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 ‘조선 왕실의 기록으로 본 19세기 장면들’이라는 5가지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 전시에서는 주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영향을 받은 여향문인(閨巷文人)들의 작품들,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星應, 1820~1898)의 〈운계시첩〉,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의 〈군국기무소회의도〉, 〈책거리 10폭 병풍〉, 〈해학반도도〉와 같은 회화와 〈백자양각재명 매죽문 선형 필세·필가〉, 〈화각 함〉 등의 공예품들, 〈곤여전도〉, 〈수선전도〉, 〈명성황후 한글편지〉 등 19세기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관람 시간은 월~금요일, 9:30~17:00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ewha.ac.kr>) 혹은 전화(02-3277-31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극복 모금액 4억여 원 달성, 재학생 장학금 지급

대외협력처(처장 최유미)가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에 총 4억 1,004만 8,141원이 모금 됐다. 4월 10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 모금 캠페인에는 총 799명의 기부자들이 참여했으며, 당초 목표액이었던 3억 원을 훌쩍 초과해 4억 원이 넘는 기금이 마련됐다.

모교는 5월 말 도움이 긴급한 재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득 정도에 따라 1인당 7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선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이화 교정으로 돌아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2차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긴급 모금은 최근 진행했던 기부 캠페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참여 성과를 보였다. 모금 시작 첫날에만 100건이 넘는 후원으로 약 5,000만 원이 모금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총동창회, 개별 국내 동창 및 해외 동창, 교직원, 은퇴교직원, 후원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액 초과 달성이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은 “짧은 기간임에도 23만 국내외 동창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의 동창인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보내왔다”며 “이화 재학생들에게 언제나 선배라

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취업난과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 학생들의 열정과 자존감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는 아이소이 대표 이진민(국문 86) 동창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외에도 이대ALPS 동창회, 이화비즈 등 각 동창 모임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에 큰 힘을 보탰다. 전·현직 교직원들 역시 이화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겨내는 곳임을 강조하며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혜숙 총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증함을 알기에 이화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노력했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 기꺼이 함께한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은 이화인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여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아세안 국가 교수 대상 박사 학위과정 전액 장학 프로그램 실시

모교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의 여성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아세안 석사학위교원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우수 교육 인프라를 아세안 국가 현지에 전수해 교육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모교는 올해 초 본 사업에 선정돼 2025년 8월까지 아세안 국가의 석사학위 소지 교수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아세안 국가는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국을 말한다.

모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여성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을 통해 2020학년도 2학기 입학한 신입생은 사회복지학과(캄보디아), 교육학과(미얀마), 식품영양학과(베트남), 한국학과(베트남)의 총 4명이다. 장학생들은 등록금은 물론 정착 지원금과 항공료, 생활비 등 일체 비용을 한–아세안 협력기

금으로 지원받으며 모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한국학과 관련된 4개 전공 쿼드(Quad), 즉 국제학–한국학–북한학–정치외교학을 비롯해 한국어교육(3개 전공), 생태 기반 차세대 응용과학전공(2개 전공)이 포함된 ‘4–3–2 전공 클러스터’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여성학과, 간호과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총 17개 학과가 교육에 참여한다. 장학생들에게는 각자의 전공과 논문 주제에 맞는 ‘맞춤형 3년 플랜’ 설계를 통해 주 전공 외에도 클러스터 내 연계, 복수 및 부전공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 외에도 이들에게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도 주어진다.

모교는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화–코이카(Ewha–KOICA, 개발도상국 여성 공무원 집중 교육 프로그램), UB Faculty Scholarship(UB 파트너 대학 교원의 상위 학위과정 진학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 여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아세안 석사학위교원 장학사업’을 통해 ‘한–아세안 여성 지식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네트워크 히브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회, ‘김옥길 선생 30주기 추모예배’ 온라인 개최

대학교회는 8월 23일(일) 오전 11시 ‘김옥길 선생 30주기 추모예배’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모교는 여성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김옥길 선생(1921~1990, 이화여대 8대 총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김옥길 기념강좌’와 함께 ‘김옥길 선생 추모 예배’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 강좌 개최가 취소되었지만, 타계 30주기를 맞아 김옥길 선생의 기일인 8월 25일(화)을 이틀 앞둔 23일(일) 온라인으로 추모 예배를 진행했다.

장윤재 교목실장이 집례한 온라인 추모예배는 개회 찬송(216장), 개회 기도와 교독(시편 23편)으로 시작했다. 특히 김옥길 선생이 생전 신앙 강조 주간 예배(1976년 5월)에서 드린 기도를 공동의 기도로 함께 올리고, 김혜숙 총장과 서광선 명예교수가 참석해 추모사를 전하며 김옥길 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숙 총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화인으로서 김옥길 선생을 추모하는 것은 선생님의 신앙과 인간 사랑이 수없이 많은 이화인들의 가슴속에 남아 이화의 정신과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데 영향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이화가 한국 근대화 물결 안에서 성장하던 시기이고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성 리더로서 보여주셨던 선생님의 올바름을 향한 씩씩한 발걸음 그리고 약자에 대한 담대한 사랑과 넉넉한 품은 이화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옥길 총장 재임 시절 교목실장을 역임한 서광선 명예교수는 학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가는 학생들 앞에 서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교수들을 위해 정부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구명 운동을 하는 등 이화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김옥길 선생의 일화를 전하며 “김옥길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신 참된 신앙인이었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장윤재 교목실장은 ‘넉넉한 교회’라는 주제로



성경말씀을 전했다.

‘넉넉한 교회’는 대학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인 1977년 9월 마지막 주일 김옥길 선생의 설교 제목으로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정신적 여유에서 오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설교를 통해 김옥길 선생의 말씀과 생애를 함께 돌아보고 넉넉한 교회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선생의 신앙과 지식에 앞서 인격을, 기술에 앞서 사랑을 가르치며 참된 지식인을 기르고자 했던 교육 철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그 뜻을 기렸다.

이와 함께 대학교회는 온·오프라인의 예배 참석자들이 함께 김옥길 선생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재단 아래 단상에 김옥길 선생의 사진들과 저서들로 장식해 소개하고, 김옥길 선생 사진 자료집을 배포했다. 김옥길 선생 추모예배는 대학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ewhachurch>)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고 김옥길 선생은 문교부 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의 여성 교육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1970), 마리아클라라상(필리핀, 1976), 인촌문화상(1982), 유니온 신학대학원 공로상(1983)을 수상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봉헌식 개최

모교는 8월 26일(수) 오후 3시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봉헌식을 개최했다. 이화·오뚜기 어린이집은 (주)오뚜기의 후원으로 조성된 직장어린이집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995m<sup>2</sup> 규모로 신축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예식사와 성경봉독, 기도, 총장 인사, 봉헌사 및 축도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후원한 (주)오뚜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여자 대학으로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화·오뚜기 어린이집이 교직원 및 대학원생, 연구자 등 이화 구성원들의 자녀 양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화·오뚜기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방염·방진 등 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으며, 안전한 실내외 활동 지원을

위해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보육실 이외에도 유희실, 도서 공간 등 어린이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원 48명의 보육시설로 인기받아 지난 3월 2일(월) 만 1~3세반 총 21명으로 개원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보육만 운영 중이다.

한국 최초의 유치원인 부속이화유치원과 최고의 영유아 교육·연구기관인 이화어린이연구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을 선도해온 모교는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운영에 보육 및 교육 분야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직장 보육시설 확산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선도적인 직장보육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2019학년도 전·후기 졸업생

**5,666명 배출**

모교는 2019학년도 전·후기 학사 3,388명, 석사 2,026명, 박사 252명 등 총 5,666명의 졸업생들을 위해 총장 축사와 졸업 축하 영상을 제작, 축하의

뜻을 전했다.

모교는 지난 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201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과 후기(2020년 8월) 학위 수여식을 통합하여 8월 28일(금)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당초 최소 인원 참여로 진행하

려던 온라인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김혜숙 총장의 축사 및 졸업 축하 영상을 8월 28일(금) 오전 10시 학교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이화 역사상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졸업 축사를 전하게 된 김혜숙 총장은 “정든 이화 교정을 뒤로하고 더 큰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이화인으로 가져야 하는 자긍심과 여성에 대한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연하고 개방적 자세로 변화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이화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모교는 학위 수여식 취소로 인해 아쉬움이 클 줄업생들을 위해 학위복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 이화 그린 휘장 등 조형물을 설치해 아름다운 캠퍼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이화에서의 대학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 축하 영상도 제작해 축사와 함께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모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년도 졸업생에는 2019 후기 최연소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변하영 동창이 포함됐다. 변하영 동창은 2014년 모교 졸업식에서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학사 졸업했으며,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지도교수 임혜숙)에 진학해 대학원 재학 기간 내내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다. 또한 국가지원 ‘글로벌핵심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인공지능·머신러닝분야 세계 1위 대학인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AI 심화 교육을 수료하고 네트워크 알고리즘 및 구조, 딥러닝 분야의 완성도 높은 졸업논문으로 우수학위 논문상을 수상했다. 변하영 동창은 “과학기술 발



전에 이바지하는 세계 일류의 공학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10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 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이화만의 특별한 세계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를 받은 판 흐엉 미트엉(Phan Hoang My Thuong) 동창은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의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로 부임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고등교육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제학전공을 졸업한 씀초 이 나따눈(Somchoe Nattanun) 동창은 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연구 프로그램 대학원 과정에 진학해 국제외교분야 전문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많은 EGPP 졸업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전문 역량을 널리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위 수여식이 취소됨에 따라 졸업증서와 학위기는 8월 28일(금)부터 소속 전공(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하게끔 하였다. 모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교내 곳곳에 발열체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알바니아 정인혜 동창

## 코로나19 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복음주의 교회의 어려움

얼마 전 알바니아 복음주의 교회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5개월 전, 한 가정에서 큰딸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했는데, 남은 가족들이 시신을 집에 두고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죽은 딸이 부활할 것이라 믿고 그 엄마가 50일 넘게 물만 마시고 금식 기도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예전에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교회가 언론의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교회와 무관한 신흥 종교(Scientology)를 신봉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혀졌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알바니아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마스크 나누기

코로나19로 인해 사역들이 중단되어 고민하고 있던 중, 높은뜻광성교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을 보내 주시고 이웃들에게 마스크 나누는 일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350개의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GMP 알바니아 선교사들도 이 일을

단체 차원에서 함께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4,000여 장의 마스크를 구입하고 포장하여 각 지역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팔키 보건소와 탁아소의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학교가 개학하면 팔키 마을에 있는 두 군데의 공립학교에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신총회선교부(HIS)와 파송교회인 영화교회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스크 나누기가 이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의 움직이는 책방

올리브 센터 사역이 중단되어 더 이상 영어와 한글 수업 및 토요 어린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담은 『조이의 비밀장소』라는 제목의 어린이 책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진과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날을 맞아 각 가정에 과자와 이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보내

주신 현금의 일부로 어린이 도서를 구입하여 '이 나의 움직이는 책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 어린이 모임에 나왔던 아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다섯 권의 책(그중 한 권은 기독교 서적)을 한 가정에 배달하면 한 주간 읽고 피드백을 적은 후 다른 가정에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이동 도서관인 셈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이사간 아이들도 있고, 책 속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부모가 문제 삼아 다시는 센터에 나오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생겨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기쁨과 습관을 얻게 되고, 책 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들, 아코마

알바니아 필드에 소속된 열 가정의 선교사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인터넷 화상 미팅을 통해 각 가정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매주 한 사람씩 순번을 정해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내용의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한 후 줌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시간의 이름을 '아코마'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아빠, 엄마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중물을 준비하고 있다'에서 앞 글자만 딴 것으로, 알바니아 말로는 '아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코마'를 통해 선교사로서 삶과 사역의 본질이 무



### 기·도·해·주·세·요

1. 온 가족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이곳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시고, 알바니아 정부가 지혜로운 대처를 하게 하소서.
3. 팔마 마을 이웃들에게 마스크 나누는 일을 통해서 감염병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4. 저희가 복음을 나눈 가정과 센터에 나왔던 아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복음의 빛을 조명해 주소서.
5. 알바니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소서.
6. GMP 알바니아 팀이 건강하게 쇄워져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드 대표로서 지혜롭게 팀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7. 자녀들이 이 시간을 청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히 고3이 되는 형식이가 진로를 위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소서.
8.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이 연우 간에 간접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평안하시도록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엇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AC(After Corona)의 시대'를 함께, 지혜롭게,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글·정인혜(수학 94)

#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 음악대학

회장 \_\_ 최은희(종음 81)

### 5명의 재학생들에게 동창회 장학금 수여

6월 27일(토)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예림회 피아노 듀오 시리즈 VIII'를 개최하였다. 예림회는 함영림(피아노 80) 교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이날 연주한 동창은 이귀란(90)·이진(94)·최민경(96)·강소연(03)·박우빈(03)·김세연(04)·홍상희(05)·장진영(06)·최수은(06)·권혜인(07) 동창 등이다.

7월 6일(월) 그동안 연기되었던 음악대학 정기총회 대신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겸한 임원총회를 이대 후문 식탁에서 가졌다. 음악대학 동창회 회장단과 2019년 올해의 이화인들이 모여 총다섯 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함께 식사하였다. 같은 날, 영산아트홀에서 모교 성악

과 출신 성악인들의 모임인 '이화성악회'가 '제14회 이화성악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손미선(86)·정병화(87)·이미선(90)·임수영(92)·홍은영(99)·최정윤(02)·박이연(04)·김지영(10) 동창이 무대에 올랐다.

## 조형예술대학

회장 \_\_ 신영선(장미 88)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 진행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이하 녹미회)는 8월 25일(화) 오후 3시에 줌(Zoom) 화상회의로 2020 녹미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녹미회 고문, 각 과 회장단, 임원진이 참석하여 전년도 선교부 및 각 과의 활동 보고, 회계결산 보고 및 2020 하반기 녹미회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녹미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처음으로 줌을 통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였다. 낯선 세상이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동창회가 되고자 노력하기로 한 녹미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빠른 흐름에 동참하였다.

총회의 토의 안건은 '코로나 시대, 녹미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으며, 이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귀주(동양 74) 고문과 봉지희(섬예 85)



장학금 수여식을 겸한 임원총회를 개최한 음악대학 동창회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총회에 참석한 녹미희 동창들

고문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 있는 녹미희가 되자고 말하였다. 앞으로 녹미희는 각종 행사에서 연기나 취소보다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을 도입하여 비대면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동창 간 소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의과대학

회장 \_\_ 심 현(의학 80)

###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 릴레이 동참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들이 낯설기만 하다. 2020년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유경하(의학 84) 이화의료원장, 유재우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의학 93) 이대서울병원장이

참석해 어렵게 마련한 자리를 빛내 주었다.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임 회장인 이남희(의학 79)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 동창회를 이끄느라 고생한 이남희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윤석완(의학 76) 동창은 30대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 취임하여서 이화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윤동창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여자의사회가 어려운 의료 현실에 등불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였다.

최영아(의학 95) 동창이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최영아 동창이 최연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자임을 알려 의대 동창들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이날 최영아 동창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의대 동창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숙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상은 39기 박미혜(의학 90) 동창이 수상하였다. 박 동창은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런 39기 여러 동창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대표해서 이상을 받게 되었다고 겸손한 인사를 전하였다.



2020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의과대학 동창회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한 의과대학 동창회

토의 시간에는 학술연구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및 장학위원회 내 규 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지한 토론 속에 피상순(의학 84) 총무의 부드러운 진행이 조화를 이루는 회의였다.

비록 여러 가지 우려와 제약들로 많은 동창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로 바뀐 새로운 사회에, 동창회가 이에 걸맞는 모임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2020년 1차 정기이사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을 의대 후배들을 위한 동영상 제작으로 마무리하였다.

한편 의대 동창회들의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희의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도 모금 행렬에 동참했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2020년 8월 1일(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옛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동창회 상임이사 및 동창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21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심현 회장은 “하루 빨리 의협회관을 완공하기 바라는 마음에 이화의대 동창회 상임이사 및 동창들의 뜻을 담아 신축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의협회관 신축은 의료계 숙원사업이며 의사 회원들 모두의 자존심인 만큼 우리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회관을 직접 방문해 이화의대 동창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 주신 심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회관의 기초를 놓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 약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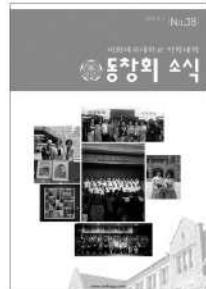
회장\_\_ 김용재(약학 82)

### 동창회 소식 제38호 출간

6월 6일(토) 1970년 약학과를 졸업한 동창들의 졸업 50주년 기념식이 역삼 루안에서 49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약학대학 동창회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기념문집을 발간하고 50년의 사진들을 모아 동영상을 만들고 QR코드로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참석한 임원들과 여러 동창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8월에는 약학대학 《동창회 소식》 제38호를 출간하여 3,589부를 국내 약학대학 동창들에게 송부하였다. 이 소식지는 1년에 한 번 발간되며, 모교와 총동창회, 약학대학, 약학대학 동창회의 소식과 동창 근황 등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올해 예정되었던 동창회 행사들이 다수 취소되어 행사 보고는 줄었으나 동창들의 근황과 코로나19 경험담, 시, 수필 등으로 꽉 찬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약학대학 동창회에서 출간한 《동창회 소식》



동창회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한 약학대학 동창회

#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 영어영문학과

회장\_윤유정(76)

### 8개월 만에 임원회의 열어 새 회장단 구성

8월 24일(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차례 연기를 거듭해 왔던 임원회의가 총 여덟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리단길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영학회의 선후배 임원들은 거의 8개월 만에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터여서 모두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그간 쌓인 회포를 풀었다. 임원회의에서 새롭게 회장단이 구성되었고, 언제나 아낌없는 열정과 현신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전임 김혜정(72) 회장의 퇴임 소감과, 힘을 합쳐 영학회를 잘 꾸려가자는 신임 윤유정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그리고 곧 있을 온라인 바자에 대한 활기찬 브레인스토밍을 끝으로 이날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임원회의에서 새 회장단을 구성한 영어영문학과 동창회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동창회 기간사들이 각 기별로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좌절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청춘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이자 이화의 언니로서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들이 담지하여 빠른 시간에 3,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이는 이화라는 큰 울타리에서 모든 선후배의 마음이 합쳐지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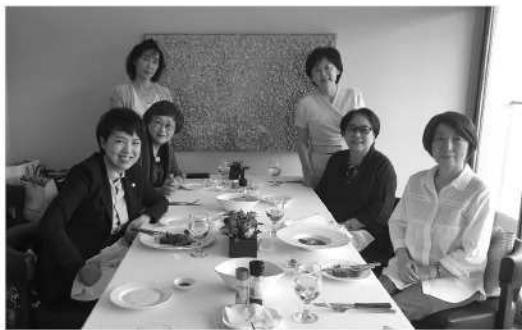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_홍인화(80)

###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오찬회

커미부 동창회는 홍인화 회장의 초대로 김은혜(93) 동창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오찬회를 6월 29일(월) 낮 12시 남산 '라 쿠치나'에서 가졌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뒤틱게 소규모로 열린 축하 자리에는 이경순(67)·김미령(69)·이경숙(76·전 국회의원) 동창과 동창회 임원으로 홍인화 회장, 이란(81)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은혜 동창은 1993년 MBC 공채 기자 출신으로 9시 뉴스 앵커로 데뷔되어 2001년 학부 창설 40주년 때 '언론홍보영상학부를 빛낸 동창상'을 받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 3월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 지역에 미래통합당의



김은혜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커미부 동창들

공천을 받아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의 쾌거를 이루었다. 김은혜 동창의 멋진 의정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 작곡과

회장\_\_ 원현미(88)

### 총장서리 취임 축하모임

8월 6일(목) 성결대학교 총장서리로 취임한 이상인(78) 동창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 홍성희(61)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임진(72·전 음악대학 동창회장, 현 총동창회 감사)·오성란(78)·문성희(80·성결대 교수) 동창과 원현미 회장이 작곡과 동창들을 대표하여 모여 작곡과 역사상 첫 총장서리로 취임한 이상인 동창을 축하하였다. 이 동창은 이화여대 작곡과 동창으로서



이상인 동창의 총장서리 취임 축하모임에 참석한 작곡과 동창들

빛나는 활약을 다짐하였고, 홍성희 명예교수는 모교를 위해 노력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서양화과

회장\_\_ 채정수(83)

### 2020 BAMA에 동창들 다수 참여

8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열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2020 BAMA)에 김애란(86)·김지선(86)·남여주(86)·송영은(86)·윤경(86)·박신숙(87)·최문선(92) 동창 등 이사회 회원이 대거 참여하여 작품을 선보였다.



2020 BAMA에 참여한 서양화과 동창들의 작품

## 조소과

회장\_\_ 박신정(85)

### 동창들의 활발한 그룹전 활동

조소과 86학번 동창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소소' 전을 개최하였다. 전시는 8월 1일(토)부터 10일(월)까지 갤러리 아트링크에서 개최되었다.

조소과의 신진 작가들의 모임 지지추의 그룹전 'Welcome to GG-chu World' 가 7월 18일(토)부터 8월 6일(목)까지 강원도 하슬라아트월드(대표: 박

신정 동창) 전시관 및 바다카페에서 열렸다.

##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전공)

회장 \_\_ 장남경(91)

### 김정혜 교수 퇴직 기념 모임

8월 3일(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 한남 '수린'에서 장식미술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동창 전시단체 바디워크(BODYWORK) 임원진들이 김정혜(80) 교수의 퇴직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동창들은 학과와 교수님과 관련한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며 전공의 발전을 위한 의견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예과 그룹전 '품:다'의 전시장 전경

(品:多)'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9년에 이어 2020공예매개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되었다. 도자예술전공 교수 김지혜(91) 동창의 지도하에 수행되는 공예매개인력양성 사업은 공예 제작자와 소비자를 잇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으로 공예 큐레이터, 공예 머천다이저, 공예 에듀케이터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정혜 교수의 퇴직을 기념하는 모임에 참석한 장식미술과 동창들

## 도예과

회장 \_\_ 김미경(87)

### 도자예술전공 석박사 그룹전

김미경 도자예술전공 교수와 도자예술전공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명품과 품격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품(品)'의 의미를 고민하고 새겨둔 작품을 주제로 7월 16일(목)부터 8월 30일(일)까지 송도 아트리움갤러리에서 그룹전 '품:다'

## 무용과

회장 \_\_ 한명옥(79)

### 친선골프모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동창회는 6월 29일(월) '제1회 이대무용과 동창회 친선골프모임'을 강원도 소재 더 플레이어스 GC에서 개최했다. 무용과의 친선골프모임은 무용과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친선골프모임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진 무용과 동창들

#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 남가주(LA) 지회

회장 \_ 남궁봉일(체육 81)

###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

“안녕하세요?”라는 일상의 안부가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요즈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공식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동창 임원 회의, 이사회와 각 단체의 모든 모임은 줌(Zoom)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즘 남가주 동창회는 11월에 멜리스에서 온라인과 Virtual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가 준비가 한창이다.

2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열아홉 명의 동창들이 합창·교가 연습과 함께 영상으로 보낼 녹음·녹화 준비에 온 힘과 열의를 쏟고 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온라인 총회 텔런트쇼에서 3연승 하는 것을 꿈꾸며, 아홉 명의 남가주 동창회 임원들은 댄스 연습에 몰입하고 있으며, 두 명의



줌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남가주 지회

음대 동창들이 피아노와 첼로 합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박현덕(영문 59)·이춘자(약학 62)·남궁 영(불문 69)·배순자(무용 68입) 동창이 기부한 장학금의 일부는 6월과 7월에 거쳐 북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창 중에서 선발한 열 명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남가주 동창회의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들은 아이티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며 미국에서 목회 공부를 하는 선교사, 명문대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동창 등 모두가 이국땅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딸들이다.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이화여대를 빛낼 동창들에게 희망을 건다.

남가주 동창회의 이사회는 ‘이사회 장학금’이라는 타이틀로 3,000달러의 장학금을 남가주 동창회에 기부했다. 흔쾌히 장학금을 기부한 남가주 동창회의 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하명숙(체육 66)·김윤자(간호 67)·윤수현(조소 68)·고복주(생명 70)·박신화(기독 70)·김경희(서양 72)·안혜숙(간호 74)·김정순(간호 75)·장계원(문정 76)·남궁봉일(체육 81)·정현숙(체육 87) 동창.

코로나19도, 불볕 더위도 막을 수 없는 남가주 동창들의 동창회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에 사랑을 더해 가리라 기대한다.

## 멜버른 지회

회장\_\_신은미(사회 99)

### 소규모 등산 모임

6월 20일(토) 멜버른 지회 동창들은 단데농 레인리스 국립공원의 Mt.Dandenong 1000 Steps에서 비공식 소규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등산을 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생활 패턴,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그 밖의 정보를 공유하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함께하였다.



함께 등산을 하며 친목을 다진 멜버른 지회

## 미네소타 지회

회장\_\_김정은(체육 90)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한인들에게 위로의 마음 전해

7월 미네소타 동창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



은혜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 미네소타 지회 동창들이 마련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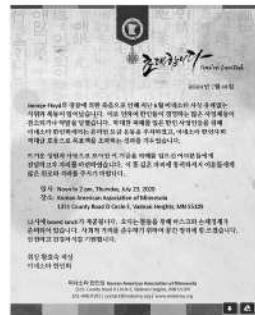
### 로 촉발된 시위와 일

부 폭동 가운데 피해  
를 입은 한인 사업인  
들을 위한 모금 운동  
에 1,000달러 성금  
을 전달했다. 이 모

금 운동은 미네소  
타 한인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화 동창회를 비롯, 많은 한인들의 참여로 목  
표액을 초과하는 기금을 모았다. 7월 23일(목) 미  
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동창회는 6월 26일(금) 한인복지센터에  
서 운영하는 은혜의 집(Assisted Living Place)에 거  
주하고 있는 6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에게 특별  
한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였다. 이 행사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선  
물을 받은 이들은 “모든 동창에게 감사 인사를 전  
해 달라”, “간혀 있다가 선물을 받으니 매우 기쁘  
다” 등등의 감사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전과 같은 대  
면 동창회 모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온라인으  
로 모임을 대체하였다.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  
친 온라인 동창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개  
인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



미네소타 한인회의 초청장

를 함께 나누는 등 연대의 끈을 지속하고 있다.

## 보스턴 지회

회장\_\_신은경(법학 88)

### 소수 이민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

보스턴 지회도 다른 지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 세상을 뒤흔드는 팬데믹으로 올해 예정된 동창회 계획들을 전혀 실천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커지만,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화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수 이민 공동체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4월에는 Care Kit을 100개 만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로렌스 히스페닉 공동체에 전했다. Care Kit에는 마스크, 치약, 칫솔, 비누, 비닐장갑, 그래놀라바 등을 넣었다. 그뿐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불법 체류자나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잃어 렌트비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여러 동창들이 자원해서 구제금을 보내 주어서 1,500달러를 전달했다. 우리 이화인들의 이웃을 향한 훈훈한 정이 그 누군가의 삶에 따스한 힘

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8월에는 Care Kit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스턴 남쪽에 위치한 아이티 이민 공동체와 아이티 본국, 하바드 스퀘어의 노숙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역 장학생들과 모교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도토리 국수와 콩국수 가루 바자회를 열었다. 콩국수 가루는 백정희(간호 74) 동창이 도네이션을 해주었고, 여러 동창들의 도네이션과 협조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행히 동창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거의 집에만 있는 상황에서 동창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영상이나 음악, 시들을 올리기도 하고, 브로드웨이 무료 공연이나 루브르박물관의 무료 미술관람 정보를 나누었다. 이외에도 오페라, 영화 등 수많은 예술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장도 되었다.

때로는 두뇌 훈련을 위한 퀴즈들을 내어, 서로 답을 연구하며 새로운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집 주위의 새들이 알을 깨고 성장하는 과정, 아름다운 꽃과 호수들을 사진 찍어서 공유하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동창들은 이번 상황을 통해서 보스턴 이화인들



Care Kit을 만들어 지역사회 공동체에 나눔을 한 보스턴 지회 동창들

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인지를 깨달았다. 또 힘을 합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인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했다.



비대면 월례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북가주 지회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 온라인으로 매월 월례 모임

북가주 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동창들의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다. 5월부터 줌(Zoom)으로 월례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매월 월례 모임을 갖고 있다. 매월 20~30여 명의 동창들이 줌을 통해 모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본인이 먹는 점심을 소개하고 조리법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동창들은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한국 음식, 꽃 이름 이어가기 등 간단한 오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모두 줌에 서툴러서 월례 모임 전에 네 차례의 테스트 미팅을 하였는데, 대선배들도 거뜬하게 줌 미팅에 참석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 번 갖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창들의 안녕과 건강을 묻고 동창들의 연락처도 업데이트하기 위해 ‘Reach-Out-Campaig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창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연락처를 갱신했다. ‘Reach-Out-Campaign’ 중에, 60여 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찾고 싶다는 동창의 요청에 다른 미주 지회장의 협조를 받아 친구를 찾아준 미담도 있었다. 또한 암으로 투병하는 동창의 소식을 접하고, 4개월여 동안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암세포

가 사라졌다는 CT 결과를 나누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온라인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장기 자랑 연습과 촬영을 위해 교회 잔디밭, 동창 집의 정원, 공립 공원 등에 모여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율동을 연습하고 파크닉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북가주 지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화는 하나이며 중단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 일본 지회

회장 \_\_ 고정희(장미 74)

###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통화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에서 각각 회장과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운천(평교원 96)·문춘자(정책과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재난 협력금을 기부한 일본 지회

학대학원 09) 동창이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하였다. 사랑의 나눔 단체가 재일동포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재난 협력금(3,000만 원)을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준 사랑의 나눔 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동창들이 자랑스럽다.

## 워싱턴DC 지회

회장\_\_서혜경(정외 90)

### 온라인 교양 특강 진행

워싱턴DC 지회는 7월 9일(목)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교양 특강을 진행하였다. 강연자로는 아메리칸 대학 경영대학 정교수이자 IT&Analytics 학과장인 이관후 교수가 나섰다.

이관후 교수는 초연결-인공지능 등 주요 기술의 동향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 및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참여 동창들의 열의가 가득했던 질의 응답 시간을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특강에 대한 우려도 있었



온라인 교양 특강을 진행한 워싱턴DC 지회

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동창들이 참여, 새로운 형식의 동창회 모임에 대한 기대 상승과 가능성 증대의 기회가 되었다.

## 진주 지회

회장\_\_조정순(불문 77)

### 미수연을 축하하며 삼천포 나들이

6월 9일(화) 이영수(교육 58) 동창의 88세 미수연을 축하하기 위해 삼천포로 나들이를 하였다.

붐비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선화(교육 81) 동창의 축하송, 이영수 선배의 답가, 그리고 케이크의 화려한 콧불이 이화의 배꽃처럼 환하게 빛나는 시간이었다. 진주 지회의 단결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준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



삼천포로 나들이를 다녀온 진주 지회 동창들

## 토론토 지회

회장\_\_박현애(사회과교육 81)

### 동창들의 재능 발휘로 텔런트쇼 준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온라인 총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토론토 지회

의 각종 연례행사(야유회, 걷기모임 골프모임 등)들이 중단되었다. 대신 화상 미팅을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연말에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온라인 총회에 출품할 텔런트쇼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 30명의 동창들이 참여하여 각자 녹음·녹화·영상편집 등으로 재능을 발휘해 주었다.

마침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어 소수의 동창들이 오랜만에 조용한 야외에서 만나 비디오 촬영도 하고 대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도란도란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음악동호회인 화음회 동창들은 매주 영상으로 모여 노래와 악기 연습을 병행하며 실력 향상과 동창간의 우애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9월 횃불회 모임은 아직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즐겁게 만나 동창 모

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 파리 지회

회장\_윤애영(서양 88)

### 재불이화가족의 코로나 생존기

올해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진 봉쇄령으로 인해 재불이화동창회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인 6월 봄 야유회가 취소되었다. 봉쇄령 해제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었기에 아쉽지만 다음 만남의 자리인 12월 정기총회를 기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동창회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이병주(불문 62) 동창의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을 위하여 윤애영 회장과 함미연(불문 81) 전 회장 등이 만나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정리와 함께 주변 동창들의 근황을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라 소모임 수준의 모임 역시 조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역대 동창회장단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코로나19 예방 및 기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나누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는 파리 지회 동창들

##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박윤옥(간호 75)

온라인 동창회로 동창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필라델피아 지회는 평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동창들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발생 후 모이지 못하다가 6월부터 줌(Zoom)을  
통해 온라인 동창회로 만나고 있다.

6월 4일(목) 11명의 동창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그간의 근황을 교환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점심을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편  
으론 저녁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줌을 이용해 온  
라인으로 만나니 일하느라 동창회에 못나온 동창  
들이 함께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었다

7월 10일(금)엔 8명의 동창이 줌을 통해 화상  
으로 만남을 가졌다.

8월 7일(금)엔 8명의 동창들이 함께하였다. 이날  
새롭게 참가한 오성실(영문 68) 동창은 은퇴 후 아  
들 집 가까이로 이사 왔는데, 필라델피아의 손자  
들과 시카고의 외손녀 둘을 일주일에 4~5차례 번



줌으로 이루어진 필라델피아 지회의 7, 8월 동창 모임

갈아 줌으로 만나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고 하여 여러 동창들의 귀감이 되었다.

한편 북미주지회연합회 온라인 총회를 위해 일  
곱 명의 동창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열심히 연습  
중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와 자유로운 일  
상으로 돌아가길 고대하며, 평소의 잔잔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 요즈음이다.

## 홍콩 지회

회장\_\_최명성(교공 76)

### 차기 회장·부회장 내정

홍콩 지회 동창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  
리 두기 정책이 잠시 완화되었던 7월 9일(목)에 센  
트럴에 있는 Sports Club에서 상반기 마지막 모임  
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차기 홍콩 지회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한유미(융합보건 90) 동창이, 함께  
할 부회장에 최성희(정외 87) 동창이 내정되었다.

홍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  
는 상황에서도 동창 간의 우정과 결속을 다지며,  
9월 하반기 모임을 기약하는 즐거운 자리였다.



7월 점심모임에 참석한 홍콩 지회 동창들

**신금례(서양 49) 동창**

6월 12일(금)부터 8월 2일(일)까지 환기미술관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신금례 동창

**김양식(영문 54) 동창**

7월 23일(목) 저녁 7시 인도박물관(관장: 김양식)에서 동국대 최경아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진행되었다. 주제는 '활동하는 철학, 거듭나는 종교-전 아시아적 힌두 문화'였다.



김양식 동창

**김은희(서양 61) 동창**

7월 3일(금)부터 8월 23일(일)까지 GS칼텍스 예올마루 장도 전시관에서 기증 작품전을 열었다.



김은희 동창

**박재희(무용 72) 동창**

8월 28일(금)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태

평무예능보유자 박재희 춤'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공개행사를 열었다. 전통문화를 함께 향유하며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재희 동창

**김효정(서양 77) 동창**

6월 2일(화)부터 13일(토)까지 파비온드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효정 동창

**이은숙(섬예 79) 동창**

5월 29일(금)부터 6월 14일(일)까지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제2회 열린 아트 공모전'에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작품을 전시하였다. 선정된 <빛의 도시>는, 설치미술가로 활동 중인 이은숙 동창이 성병권 디자이너와 협업한 작품이다.



이은숙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제13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최명숙(정외 57) 동창이 2020년 9월 22일(화) 향년 87세의 일기로 영면했다. 1999년 3월 총동창회장에 취임해 2003년 2월 임기를 마친 최 동창은 재임 기간 중 우월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대음악회' 개최, 우월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금 1억 원 모교에 전달, 모교 학생처와 공동 주관으로 '이화사회 봉사 대행진' 개최, 대강당 보수기금 총 23억 원 모교에 전달, 대외협력처와 공동 주관으로 이화동창 포털사이트 [www.ewhain.net](http://www.ewhain.net) 개설 등의 업적을 이룬 바 있다.



### 최은경(조소 79)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교수 최은경 동창이 7월 18일(토) Gallery HELEN,A(서울시 종로구 경교장길 35)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개인전 'CROSS'를 개최하였다.



최은경 동창

### 염선행(생미 83) 동창

7월 25일(토)부터 9월 4일(금)까지 남해 바람흔적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바람난 지구'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여행에 대한 갈망을キャン스에 그려낸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염선행 동창

### 윤혜순(관현 83) 동창

코라인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하피스트 윤혜순 동창이 6월 말, 코리안심포니 창단 이래 처음 정년을 맞는 단원이 되었다. 윤혜순 동창은 2014년 하프 앙상블 '더 하프'를 창단하였으며, 10월부터 매달 인천아트센터에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윤혜순 동창

### 나진숙(조소 84) 동창

7월 8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삼탄 아트마인에서 초대전 '숨결, 물결, 바람결'을 가졌다.



나진숙 동창

### 피상순(의학 84) 동창

피상순 동창이 제16대 경기도여자의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피상순 동창은 지난 6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자의사회 제30대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 김인숙(법학 85) 동창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숙 동창이 뉴스통신진흥회 보궐 이사로 선임되었다. 김인숙 동창의 임기는 2021년 2월 7일까지다. 김동창은 SBS 시청자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법률자문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인숙 동창

### 서미경(사회 86) 동창

서미경 동창이 강원도여성가족 연구원장에 취임하였다. "여성 일자리 등 현안 중심의 연구로 도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서미경 동창은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미래여성커리어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미경 동창

### 윤선흥(동양 88) 동창

뉴욕, 영국아트페어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윤선흥 동창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과 인기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을 와디즈펀딩을 통해 한정 에디션 작품으로 선보여 펀딩에 성공했다.



윤선흥 동창

### 이선희(의학 88) 동창

이선희 동창이 '제43회 의·약사 평론가' 시상식에서 2020년도 의사평론가로 선정됐다. 이 시상식은 JW중외제약이 후원한다. 이선희 동창은 복지부, 국무



이선희 동창

총리실, 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자문에 참여해 왔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 이정림(물리 88) 동창

8월 10일(월) 이정림 동창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심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동창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장을 역임하였다.



이정림 동창

### 김선영(조소 89) 동창

7월 1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조각미술관 바우지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선영 동창

### 고정숙·김은경·김은지·박연숙·박연옥·서병진·송희정·이연숙·임수경·차보경·허서령(모두 동양 90) 동창

7월 29일(수)부터 8월 3일(월)까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이화채색화연구회 'Today 화조화' 그룹전을 열었다. 정병모 교수가 기획했으며 민화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다.



이화채색화연구회

### 김희라(동양 90) 동창

8월 14일(금)부터 22일(토)까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김 동창은 자신만의 독특

한 시각으로 자연을 표현하는 리얼리즘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먹을 활용하여 율동과 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형상을 표현했다.



김희라 동창

### 이귀란(피아노 90) 동창

전 피아노과 동창회장 이귀란 동창의 피아노 독주회가 8월 7일(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이귀란 동창

### 이주연(동양 90) 동창

7월 22일(수)부터 8월 11일(화)까지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아트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Compound Structure'를 열었다. 이주연 동창은 덕성여대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주연 동창

### 장은진(심리 90) 동창

8월 27일(목) 열린 한국심리학회 온라인 총회에서 장은진 동창이 제5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다. 장 동창은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49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장,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 및 정책기반심리서비스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진 동창

### 김지혜(도예 91) 동창

모교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혜 동창이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KCI)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지혜 동창

### 박혜숙(의학 91) 동창

모교 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동창이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되었다. 현재 박 동창은 의학한림원의 정책개발위원회 위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혜숙 동창

### 서은경(영문 91) 동창

서은경 동창이 2020년 미네소타 McKnight Fellow Artist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1953년 설립된 McKnight Foundation의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미네소타에서 가장 영예로운 미술가 상으로 꼽힌다. 서 동창은 1년 동안 2만 5,000달러 상금과 함께 비평, 전시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서 동창은 현재 미네소타 주립대학(둘루스 캠퍼스)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이문희(섬예 91) 동창

이문희(예명 MOON-E) 동창이 6월 11일(목)부터 7월 29일(수)까지 서울 문정동의 복합 문화공간 래미안 갤러리에서 개인전 'The Story·이야기' 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 제목이 말해주듯 작품 속에 이야기를 담은 이 동창 특유의 섬세함과 개성이 살아 있는 작품들이다.

### 김현아(무용 92) 동창

5월 8일(금) 문화재청이 구성한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통예술 부문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인정과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김현아 동창

### 손정은(조소 92) 동창

7월 22일(수)부터 8월 4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Gallery Jacob 1212에서 개인전 'Pure Verb'를 가졌다.



손정은 동창

### 백진(도예 93) 동창

6월 18일(목)부터 7월 18일(토)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은숙 갤러리에서 개인전 '채집'을 열었다. 백진 동창은 도자 기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백색 단색화를 그려냈다.



백진 동창

### 태혜신(무용 93) 동창

태혜신 동창이 6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창무포스트극장의 '기획공연-전통과 창작과의 만남'에서 '연화경 승무'를 공연하였다. 또한 작품 '2020 태혜신 카르마프리무용단, Flowers in Heaven' 이 7월 18일(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7월 25일(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응봉홀, 8월 20일(목)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었다.



태혜신 동창

### 이지원(무용 94) 동창

7월 1일(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지원 동창은 한국체육대학 공연예술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김정현(문정 96) 동창

김정현 동창이 ASIS&T Outstanding Teacher Award 2020를 수상하였다. 이 상은 문현정보학 교수들 중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여기관인 ASIS&T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문현정보학분야 학회로서 전세계 50여 개국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정현 동창은 미국 North Texas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현정보학 SSCI 저널 중 하나인 《The Electronic Library》의 편집장도 맡고 있다.



김정현 동창

### 송은주(약학 97) 동창

모교 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은주 동창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년도 기초연구실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7월부터 약 3년간 연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송은주 동창

### 윤명옥(정외 97) 동창

9월 11일(금) 윤명옥 동창이 한국GM 홍보담당 전무에 선임되었다. 지난해 GM에 합류해 아시아·태평양 본부 등의 홍보를 맡아 온 윤 동창은 다음 달부터 한국GM·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등 국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총괄한다.



윤명옥 동창

### 송미영(교공 99) 동창

현대·기아차 인재개발1팀장이자 삼무인 송미영 동창이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원장이다. 송 동창은 리더십개발실장과 글로벌인재육성팀장 등을 두루 거치며 인재개발 분야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송 동창은 미래 사업전략을 반영한 임직원 역량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송미영 동창

### 이수진(사복 00) 동창

이수진 동창이 8월 1일(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커뮤니케이션·사회공헌 담당 상무로 승진하였다. 이 동창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마케팅·신사업개발·전략기획 등에서 경력을 쌓고, 2016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 입사해 2018년 그룹커뮤니케이션·사회공헌 팀장을 역임하였다.



이수진 동창

### 김희진(컴공 05) 동창

김희진 동창이 대표로 재직 중인 스마트축산 ICT 전문기업인 (주)유라이크코리아가 KDB산업은행이 단독 참여한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김희진 동창

### 김지현(국제사무 10) 동창

김지현 동창이 지난 3월 영국계 사모투자 금융미디어인 PEI (Private Equity International) Media 홍콩지사 Infrastructure Investor 기자로 이직하였다. 주요 업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자산, 인프라 사모펀드 투자 및 관련 정책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김지현 동창

### 박윤지(동양 14) 동창

6월 16일(화)부터 21일(일)까지 사이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 전 ‘바람이 머물던 자리’를 열었다. 박윤지 동창은 빛의 모양, 온도, 바람 등 잡히지 않는 것들을 화폭에 담아냈다.



박윤지 동창

# 동 창 이 펴 새 책



## 하나의 반쪽

김남주(국문 63)

김남주 지음 / 도서출판 마인아트

2010년 신사임당예능대회 백일장 수필부문 격려상으로 공식적인 글쓰기 를 시작한 김남주 동창이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하나의 반쪽」은 총 4부로, 46편의 수필과 4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김 동창은 이 책에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삶을 관조하고, 갑작스레 찾아온 파킨스씨병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이 책의 삽화는 김 동창의 남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채워졌다.



## 인도주의를 실천한 여성들

오영옥(사학 68)

오영옥 편저 / 대한적십자사

오영옥 동창이 「인도주의를 실천한 여성들」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부터 미국 남부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고발한 해리엇 비처 스토퍼, 적십자의 창시자인 양리 뒤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레오니 카스트너 부인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19세기 여성들을 소개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 사라진 요리책

신수옥(화학 72)

신수옥 지음 / 지혜

신수옥 동창이 첫 번째 시집 「사라진 요리책」을 출간하였다. 신 동창의 시는 엄마의 부재, 또는 엄마의 죽음이라는 심리적 충격을 변주하며, 그 그리움이 서정시의 진수로 올려퍼지고 있다. 신 동창은 2014년 계간 『문학나무』로 등단했다



## 후포

신필주(국문 73)

신필주 지음 / 바니

신필주 동창이 지난 8월, 8번째 시집인 「후포」를 출판사 바니에서 출간했다. 1, 2, 3부로 나뉜 바다 기행 시집에는 60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신필주 동창은 젊은 시절 소외된 이를 구하기 위한 소명을 갖고 바다를 찾았다.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의 특징과 생태,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특유의 통찰력으로 이 시집에 담아냈다. 개성 있는 시를 쓴 데다, 문장이 맑고 자연스럽다는 독자들의 시평이 덧붙여졌다. 신 동창은 1980년 박두진 시인 추천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고향인 울산에서 꾸준히 시를 쓰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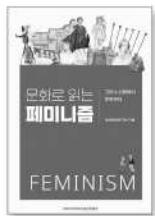
## 문화로 읽는 페미니즘

이희원(영문 79)·함인희(사회 81)·이현주(영문 83)·최경희(영문 83)·박인희(영문 90)·배경진(영문 90)·이소영(영문 91)·박성연(서양 98)

여성문화연구회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서양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한국 한옥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분석을 담은 이 책은 20대 디지털 세대들이 배타적 편 가르기와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사회와 인간,

남성과 여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되었다. 살롯 브론테 등 여성 작가의 등장, 마릴린 먼로와 여성 신체의 대상화 등 서양 문화 속 여성 문제와 함께 한옥과 여성, 한국 영화와 문학에 나타난 여성 등 한국 문화에 드러나는 페미니즘의 문제와 양상도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여성문화연구회는 여성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 모임으로, 종교·사회·문학·연극·영화·미술·건축 등 문화의 각 분야를 여성 혹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고찰·성찰하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박경미(기독 81)

박경미 지음 / 한티재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다. 성서학자이자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경미 동창은,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에 얹매여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주류 개신교 교단과 극우 개신교인들의 행태를 보며 느낀 부끄러움과 책임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소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거로 늘 등장하는 성서의 구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담았다.



### 식물에서 길을 찾다

최문형(교육 86)

최문형 지음 / 넥센미디어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최문형 동장이 식물에서 삶을 지혜를 얻는 「식물처럼 살기」에 이어 「식물 시리즈 2탄 「식물에서 길을 찾다」」를 출간했다. 〈한국조경신문〉에 연재한 칼럼 '최문형의 식물 노마드'를 정리하여 1부 '식물의 과학에서 인문학을 찾다'와 2부 '식물의 생태에서 인생의 길을 찾다'로 구성하였다.



### 그림자의 빛

김미현(국문 88)

김미현 지음/ 민음사

모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현 동창이 평론집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체의 윤리, 세속

화와 환속화, 돌봄과 자기서사, 포스트휴먼과 테크노페미니즘, 모성트러블과 모성의 확장 등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2000년대 소설의 형질 변화를 조망한다. 김미현 동창은 현대문학상, 팔봉비평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 나는 혜화동 한옥에서 세계 여행한다

김영연(정외 88)

김영연 지음 / 이담북스

한옥의 우수함을 몸소 체험하고, 한옥을 알리면서, 한옥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김영연 동창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녀간 자취를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의 여행자들이 도심 속 작은 한옥에서 서로의 문화와 인생을 나누었다. 김 동창은 2009년부터 한옥 게스트하우스 '유진하우스' (서울미래유산 김태길 가옥)를 운영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을 알리고, 한국의 멋과 맛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 소비자 불매운동사

천혜정(가관 89)

천혜정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지난 100여 년간에 걸친 한국 소비자 불매 운동의 역사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재평가를 시도한 학술서이다.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 불매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연 대하여 목소리를 내고 정치와 경제, 문화 분야에 영향을 끼쳐왔는지 논하고 있다. 천 동창은 모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소비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적 소비주의를 근간으로 한 소비자 액티비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30일 훌트

문지숙(무용 90)

문지숙 지음 / 중앙books

대한민국 텁스타들의 운동 선생님으로 불리는 필라테스 전문사 문지숙 동창이 한 달 집중 훌트 프로그램을 책으로 펴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하여 쉽고 체계적인 데일리 운동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필라테스, 요가, 줄바 등 몸매 관리의 대표 운동들이 모두 수록되었으며, 일상에서 짬짬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 만점 운동 방법들도 소개돼 있다.



## 여름은 가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박영미(의학 96)

박영미 지음 / 시와 소금

박영미 동창이 시집 「여름은 가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를 출간하였다. 이 시집에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70여 편의 시가 담겼다. 박 동창은 “마음속에 말들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꺼내 놓고는 시라고 이름 지었다”며 “나는 매일 사라진 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딘가 존재하고 내 마음속에 살아 있는 그들을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박영미 동창은 2020년 『시와 소금』 봄호를 통해 등단하였으며,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생명윤리와 법

배현아(의학 00)

권복규·김현철·배현아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5년 출간되어 문화관광부의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던 「생명윤리와 법」의 제4 개정판이다. 이 책은 초판

을 기반으로 그동안 개정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성한 생명윤리 분야 개론서이다. 생명윤리의 개념과 특징, 범주 등을 정리하고, 생명윤리에 관련한 한국의 법체계를 살펴보았다. 이 책은 대학 강의를 위한 기본 교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로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 거문고의 악기학

김선옥(대학원 07)

김선옥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40여 년간 거문고 연주자로 활동해 온 김선옥 동창이 그동안 거문고를 연주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거문고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연구서이다. 거문고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고, 거문고의 전통 연주법과 기보법, 거문고의 대표적인 악곡과 음악 사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선옥 동창은 모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KBS 국악관현악단 거문고 부수석을 역임하였다.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INCE 1999

# 에스노블

VIP 당신의 사랑과 품격 있는 결혼을 위한

두 대통령家의 성혼을 이루어낸 22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 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 성흔율

특별한 1%의 만남을 위한 에스노블의 99% 약속을  
경험하세요

상담예약/문의 02-3445-4777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상담예약/문의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able.com/>

**of'em**

*Since 1997, One of Them*

